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7

VOL. 20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PT. INWHA INDONESIA

ENGINEERING & CONSTRUCTION

PT. Inwha Indonesia 는 20여년간 인도네시아에서 Power Plant,
Oil & Gas, Piping, Petro Chemical 분야에 종사해 온 건실한 기업입니다.

이제 PT. Inwha Indonesia 가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모집 부분>
- 기계 설치 (Turbine Boiler, Steel Structure, Piping, Storage Tank)
- 토목 / 건축 / 전기 / 공무
- 공장장
- 현장 소장

<자격 조건>
언어 : 인니어 능숙자 (영어 회화 가능 우대)
컴퓨터 활용 (엑셀 / 워드 등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경력 사항
- 공무 : 최소 3 년
- 기계 설치 / 토목 / 건축 / 전기 / 공장장 / 현장 소장 : 최소 5년

이력서 접수 : ujsuh@inwha.co.id

Head Office
GD. Equity Tower Lt. 22A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SCBD)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Work Shop
Jl. Raya Jakarta Serang KM. 68
Kaw. Modern Industri Kav. 6 Cikande,
Serang - Indonesia

www.koreanair.com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2205	매일	0705+1	도착
자카르타					서울
	도착	2010	매일	1520	출발

*대한항공은 자카르타에서 서울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가듯
충실한 도약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Men & Ladies

HEAVY CASUAL JACKET and PANTS

PT.UNGARAN INDAH BUSANA

(EXPORT-IMPORT & MANUFACTURE)

3rd Floor SATMARINDO Building, Jl, Ampera Raya No.5, Cilandak
Jakarta Selatan 12560-INDONESIA
Tlp.(021) 7800820, Fax.(021)7805823

[제68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초청 안내문]

1. 안녕하십니까?
   광복절은 1945년8월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2. 이러한 뜻 깊은 광복 68주년을 맞이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8.15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모두 참여하셔서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8월 15일(목), 오전 9시
장소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대강당
Jl. Jend.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특별 공지]
8.15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와 체육대회는 저간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금년은 개최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3년 한인회 법인회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법인명	납입 연도	금 액	
			IDR	USD
1	PT. KOIN SUKSES	2013	5,000,000	
2	PT. DAILY INDONESIA	2013	3,000,000	
3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3,000,000	
4	PT. DONG JUNG	2013	3,000,000	
5	PT. DADA INDONESIA	2013	3,000,000	
6	PT. KCTC SAMUDERA	2013	3,000,000	
7	PT. LEMBU SWANA PERKASA	2013	3,000,000	
8	PT. MERINA	2013		300
9	PT. DOHWA ENGINEERING	2013	3,000,000	
총 금 액			Rp 26,000,000	$ 300

2013년 한인회 개인회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 연도	금액(Rp)
1	김 영 선	2013	300,000
2	이 인 호	2013	300,000
3	신 기 엽	2013	300,000
4	김 영 환	2013 – 2017	1,500,000
5	김 재 민	2013	300,000
6	신 충 일	2013	300,000
7	홍 문 기	2013	300,000
8	홍 석 영	2013	300,000
9	조 규 철	2013	300,000
10	정 무 웅	2013	300,000
11	전 영 돈	2013	300,000
12	김 문 호	2013	300,000
13	김 일 영	2013	300,000
14	강 덕 재	2013	300,000
15	최 양 기	2013	300,000
16	황 윤 홍	2013	300,000
17	김 문 환	2013	300,000
18	황 의 상	2013	300,000
19	이 완 식	2013	300,000
20	임 성 용	2013	300,000
21	강 희 중	2013	300,000
총 금 액			Rp 7,500,000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법인회비는 법인체당 매년 Rp.30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채용공고]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2	한인회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3	한인회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4	한인회부회장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5	한인회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3	5,000	
6	한인회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7	한인회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8	한인회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4,980	
9	한인회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0	한인회부회장	이 진 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1	한인회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3	5,000	
12	한인회부회장	조 용 우	외한은행	2013	5,000	
13	한인회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3	5,000	
14	한인회부회장	최 상 학	우리은행	2013	5,000	
15	한인회부회장	황 의 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16	한인회자문위원	강 덕 재	PT.LEMBUSWANA PERKASA	2013	1,000	
17	한인회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3	1,000	
18	한인회자문위원	김 영 만	PT.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2013	1,000	
19	한인회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3	1,000	
20	한인회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3	1,000	
21	한인회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3	1,000	
22	한인회자문위원	양 영 연	PT. TAEWON INDONESIA	2013	1,000	
23	한인회자문위원	오 세 윤		2013	995	
24	한인회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3	1,000	
25	한인회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3	1,000	
26	한인회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3		10,000,000
27	한인회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 INDO	2013	1,000	
28	한인회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3	1,000	
29	한인회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3	1,000	
30	한인회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3	1,000	
31	한인회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3	1,000	
32	한인회이사	김 경 국	PT. N E S	2013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33	한인회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3	1,000	
34	한인회이사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3	1,000	
35	한인회이사	김 상 태	SMS GROUP	2013	1,000	
36	한인회이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3	1,000	
37	한인회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3	1,000	
38	한인회이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3	1,000	
39	한인회이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3	1,000	
40	한인회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3	1,000	
41	한인회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3	1,000	
42	한인회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3	1,000	
43	한인회이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3	1,000	
44	한인회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3	1,000	
45	한인회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3	1,000	
46	한인회이사	안 홍 제	PT. KOLON INA	2013	1,000	
47	한인회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3	1,000	
48	한인회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3	1,000	
49	한인회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3	1,000	
50	한인회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3	1,000	
51	한인회이사	이 석 태	U F U	2013	1,000	
52	한인회이사	이 종 억	KOREAN AIR LINE	2013	1,000	
53	한인회이사	이 종 현	PT. LEO KORINSIA	2013		10,000,000
54	한인회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3	1,000	
55	한인회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3	1,000	
56	한인회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3	1,000	
57	한인회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3	1,000	
58	한인회이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3	1,000	
59	한인회이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3	1,000	
60	한인회이사	정 철 주	PT. DONG-IL INDONESIA	2013	1,000	
61	한인회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3	1,000	
62	한인회이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3	1,000	
63			NO NAME	2013	1.000	
총 금 액					$140,975	Rp20,000,000

차 례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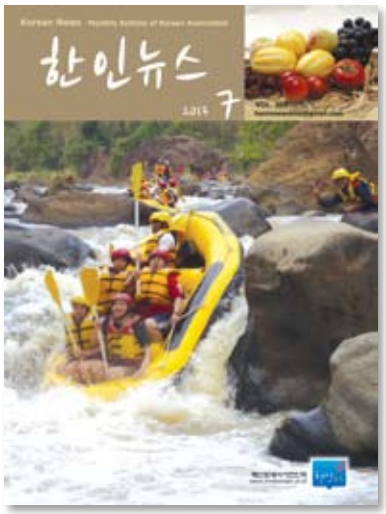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엽 배상

차 례.....10

이모저모 한인사회.....12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상공회의소 총회
한인회 신임이사 명단
국민권익위원회, 한인회 간담회
유도요노대통령 예방
인니 검찰청 성과 관리 개혁
한국 해양경찰 경비함 입항
협력 3D
아름다운 가게
해외금융신고제도
함발랑 생태교육 모델숲
외환은행 쯔룩 출장소



표지설명

Rafting in Citarik Sukabumi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흔히 여행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일상에서 몰랐던 자신을 만나는 것.
난 얼마나 소심하고,
또 얼마나 대담한가를 알 수 있는 시간.
크고 작은 나의 행성을 가꾸는 즐거움 속에
스스로를 던지고...
책으로 배운 건 종종 우리를 배신하는데 ...
떠나고 싶은 7월입니다.
일탈, 휴식, 충전...
뭐든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46
편집장 홍석영

이 달의 읽을거리

하나은행 까베엔 지점 개설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포럼
차세대 무역스쿨
코리안 필름페스티발
6.25 및 북한인권실상 사진전
한국 현대 조형작가 전시회
롯데쇼핑에비뉴 오픈
2013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JIKS 소식
JIS 소식
제1기 한국어 교사양성 수료식
포토뉴스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빠삭부미)<백진협> 40
헤리티지탐방기<김희진>.....43
뇌를 죽이는 습관 vs 살리는 습관<편집부> ...46
행복에세이<서미숙>.....48
인도네시아 역사의 수수께끼(3).....51
좌충우돌 인도네시아 표류기.....54
커피의 종류<편집부>.....56
Jalan-JalanJakarta/국립박물관<사공경>...58
풍경과 사람.....63
학교및학원설립제도<이승민>.....64
화 도 소.....68
7월의 영화추천작.....70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상공회의소 총회

2013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총회 및 상공회의소 총회가 지난 6월13일, 땅어랑(serpong 소재 BSD)에서 한인회 회장단, 자문위원, 이사진, 상공회의소 집행부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회, 이제는 한,인니양국의 상생을 도모하는 인도네시아 한인회로 거듭나는 이 시점에 자발적인 동참과 협력으로 서로의 동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는 신기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인니사회에 기여하는 한인사회로 나아가기위해 그동안의 바쁜 일정을 설명하였고, 상임분과위원회와 14개지역 한인회와의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넓게 분포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을 대표하고, 대변할 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귀한 자리였다.

이어 2012년의 활동상황과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편성안을 통과시켰다.

그 자리에서 즈빠라지역에 한인학생들과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해 개교를 준비 중인 한글학교에 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를 즈빠라한인회 문창윤회장에게 전달하였다.

5월2일 회칙개정안 발의에 따라 변화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기동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공회의소 집행부의 수장으로 송창근

(KOCHAM)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앞으로 상공회의소는 회원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다방면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근하는 노동, 국세, 세무관계자문관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멘토제를 확대 개편하여 매주 토요일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할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한인니 수교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티셔츠도 선보였다.

이사회 총회전에 열린 친선골프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끝으로 이날의 모임을 마감하였다.

한인회 신임 이사 명단

번호	회 사 명		성 명
1	PT. HONGIK INDONESIA		김 도 상
2	PT. KASINDO GLOBAL UTAMA		김 문 환
3	PT. BTEXB INDONESIA		김 세 형
4	PT. NOBLE INDONESIA		김 수 용
5	PT. INDODEV NIAGA INTERNET		김 육 찬
6	PT. YOUNGJIN INDONESIA		김 종 희
7	PT. SGWICUS INDONESIA		노 승 원
8	ASIANA AIRLINES		박 철 우
9	PT. AGRI TRADING INVESTMENT		배 정 옥
10	PT. KORINDO GROUP		승 범 수
11	PT. PARKLAND INDONESIA		신 만 기
12	PT. SUNG LIM CHEMICAL		오 세 명
13	L S W		이 소 왕
14	PT. LEO KORINSIA		이 종 현
15	PT. MIRINA NUSANTARA		임 성 용
16	PT. DONG-IL INDONESIA		정 철 주
17	자카르타경제일보사		황 윤 홍

국민권익위원회, 한인회 간담

6월 24일 한인회 회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일행과 토박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일행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2010년에 체결한 MOU를 연장하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의 고충처리 간담회,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와 각종 권익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키르기즈스탄, 태국 등 AOA 회원국의 옴부즈만 기관들과 양자간 MOU를 체결해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해외 현지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편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함께 듣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며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규철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대한민국의 외국인 근로자 민원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한국교민들의 민원에도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주길 바란다" 는 부탁에 박 부위원장은 "쌍방향 민원처리에 힘쓰겠다" 고 답했다.

권익위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와 옴부즈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두 나라 모두 재외국민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 자문위원

(한인뉴스5월호 자문위원 명단에 이어)

번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21	자문위원	조용준	Tiga Bintang Jaya, SONERGY

국세청 본청에 코리안데스크 개설 제의

푸앗 라흐마니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5일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 "외국계 기업 중에서 불성실 납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은 맞지만 한국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대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이날 인도네시아 국세청을 방문해 푸앗 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박영식 공사, 이경호 상무관, 강성팔 국세관, 김호일 주무관, 신기엽 한인회장, 안광진 KOCHAM 부회장, 배도운 봉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푸앗 청장 외에도 데디 루다에디 차장, 존 후따가올 법령2국장, 아완 누르마완 법령1국장, 끄리스마르따로 홍보국장, 헤리 수마르지또 자카르타 특별청장, 우리(Uri) 자카르타 특별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김 대사는 푸앗 라흐마니 국세청장에게 최근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 당국의 집중적인 징세활동과 관련한 한인 진출기업들의 분위기와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주재국 세정에 한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를 인도네시아 국세청 본청 내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푸앗 청장은 한인기업에 부당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사관에서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려주면 인도네시아 국세청 본부에서 직접 처리토록 할 것이라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납세성실도 분석 결과와 대응방향에 대해, 푸앗 청장은 "자카르타 특별청에 등록된 중소 규모 외국계 기업 7,000개 중 4,000개가 5년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는 한국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푸앗 청장은 "외국계 기업들의 성실도 제고를 위해 우선 기업들을 업종별, 협회별로 나누어 50인 내외 규모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무자급이 아닌 경영진에서 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측간 협의체 설치 문제는 우리 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특정 국가 대사를 만나 세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약 2시간여 동안 세무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김 대사의 국세청장 면담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있을 수 있는 한인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세무간섭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협의체를 구축하는 문제를 한인회, 코참 등과 협의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장관, 유도요노 대통령 예방

한-인니 양국관계를 '황금기'로 규정

제6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14(금)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윤 장관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부인 아니(Kristiani Herrawati)여사의 부친인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 초대주한대사와 박 대통령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위보워 대사의 신임장 제정 사진 및 아니여사의 모친과 박 대통령이 환담을 나누는 사진 등 사진액자 두 점을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증정하였고,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과 모든 배석자들이 박수를 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방이 진행되었다.

윤 장관은 현재 양국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박 대통령이 유도요노 대통령과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서 교역과 투자, 철강, 방산,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향후 창조경제 분야에 있어 한국 신정부와의 각별한 협력의사 표명하였다.

윤 장관은 양국 정부는 물론 기업 및 국민간 교류 역시 양국관계 발전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POSCO 일관제철소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 출범을 맞아 유도요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 2004년 취임 후 5차례 공식 방한)

한편 윤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그간 한국을 적극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요한 대북·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대변인

KOICA, "인도네시아 검찰청 성과관리개혁 및 시스템구축 사업" 사업시행약정 체결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6월 12일 인도네시아 검찰 행정개혁을 지원하는 "검찰청 성과관리 개혁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의 실시를 위해 대검찰청(AGO)과 동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에 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번 서명식은 인니 측 Mr. Darmono 검찰청 부청장, 우리 측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 소장 등 양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 사업은 인니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개년 간 실시된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사업' 에 대한 후속 지원의 일환이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처 및 기관 중 정부혁신 이행과 실천계획이 가장 우수하였던 검찰청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행정역량 구축과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KOICA는 이를 위해 총 145만 불을 투입하여 특수범죄와 송무업무 등의 검찰 주요 업무에 대한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청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대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선되는 행정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주요 관계자의 방한 초청연수, 관련 전문가 파견 및 주요 기자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검찰의 주요 업무에 한국의 선진 전자정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경찰청 경비함 3012함이 18일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에 입항해 현지 한인들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경찰 경비함 해외 순항

해양경찰60주년, 한-인니 수교40주년 맞이 선상만찬

20일,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경비함 3012함(3천t급)의 선상만찬이 열렸다.

3012함은 18일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에 입항하여, 19일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함정 2척과 해적 진압 및 수색구조 등 합동 훈련, 20일에는 함정 공개 행사와 교민 초청 만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선상만찬은 대사관, 한인회,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청, 교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해경 관현악단의 감미로운 음악 속에 확 트인 바다, 맛깔스럽고 풍족한 뷔페 음식, 흥미롭고 재미있는 마술, 인도네시아 여성경찰관들의 군무인 뽀쪼뽀쪼(Poco-Poco) 공연 등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비함을 돌아본 송원경양(초등 5학년)은 "경비함속의 또 다른 작은 배와 헬리콥터를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준 해경 아저씨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말라카해협 및 동남아 해역의 국제성 범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협력 기틀을 다지고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였다" 며 "합동훈련을 통해 아시아 해적퇴치 및 사고 예방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한인회 조규철 부회장은 "해양경찰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청정해역이 될 것이라" 며 해양경찰60주년을 축하하였다.

지난 5월 27일 제주에서 출항한 3012함은 북태평양 불법조업 감시 임무를 마치고 지난 6월 11~14일 싱가포르에 입항,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와 3개국 합동훈련을 했으며 6월 21일 마지막 기항지 베트남 호찌민으로 향했다.

KOTRA, 인도네시아와 "협력3.0" 추진

- 신흥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WIT Plaza' 개소
- 현지 취업,창업,업종간 협업사업,CSR 등 기업의 융·복합 수요 지원체제 구축
-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1호점이 될 듯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과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신흥국 상생 혁신기술 플라자(WIT Plaza ; Korea Win-win Innotech Plaza, 이하 상생 플라자)"가 6월 27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치되었다.

동 상생 플라자는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수출을 뛰어넘어 현지 창업 · 취업, 업종간 협업, CSR 활동 등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기업의 복합적 수요를 지원하게 된다.

개소식은 26일부터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13 자카르타 세계일류한국상품전(KOREAN EXPO JAKARTA, 2013)" 연계 행사로 자카르타 GKBI 빌딩에서 개최되었다. 개소식에는 인니 중소기업부, 투자조정청 등 정부 관계자와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 한국진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배창헌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지금까지 양국간의 협력이 상품과 자본의 교류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며 " '상생 혁신기술 플라자' 가 이를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대사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한 · 인도네시아 상생 혁신기술 플라자가 개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를 글로벌 현장에서 실현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 플라자는 Young Businessman 육성,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CSR 활동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선, 양국의 청년인력을 Young Businessman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 적정기술 및 유망분야의 사업기회 발굴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시설 및 멘토단의 성공 노하우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트라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및 한인청년회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E-learning 컨텐츠 개발, 제주감귤

원종묘목, 머플러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세계 명화 복제팀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프로젝트 참가 인원들은 상금 외에도 7월 결선대회가 예정된 국내 공모전 출전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Young Businessman으로서 6개월간 창업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최우수상은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는 "E-learning 컨텐츠 개발 플랫폼"을 기획한 마하멘토팀이 차지하였다. 기존 동영상 강의 대비 1/20 크기의 용량으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솔루션과 외딴 지역에서도 코드만 꽂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E-learning 서버 개발을 통해 소외 계층에게도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마하멘토팀의 강성영씨는 한국의 "공부의신" 창업자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09년부터 ' 12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우수상은 인니-제주팀의 "제주감귤 원종묘목"에게 돌아갔다. 제주감귤 원종을 묘목으로 만들고 인니 농가에 분양하여 수확의 일부를 로열티로 회수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니의 넓은 토지, 풍부한 재배인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우수상은 인도네시아의 Van Volker 팀의 "중부 자바 Purbalingga군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머플러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동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One Village One Product 프로그램*에 속한 프로젝트로 향후 한국으로부터 경영자문, 기술지도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ne Village One Product 프로그램은 지역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상은 한국의 세계명화 복제팀의 "농아들을 위한 십자수 공예"와 인도네시아 Wonodobo군의 "열대과일 가공공장 시설개선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창업지원 이외에도 상생 플라자는 인도네시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현지 취업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최고 권위의 외국인 인니어 교육과정인 인도네시아 대학의 BIPA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기 진출 유력 한국기업 및 다국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구직활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마르또노 국장은 "한 · 인도네시아 상생 혁신기술 플라자의 개소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One Village One Product 프로그램' 도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밖에 상생 플라자는 매주 수요일 플라자 강의실에서 업종별,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안 이슈에 대한 강연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으로 명품 포럼을 기획, 운영하여 플라자를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름다운 가게

6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름다운가게' 를 개점하였다.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는 자카르타 교민 밀집지역 중 하나인 끌라빠가딩에서 홍명희 한국본부이사장, 김상태 자카르타점 준비위원장, 조규철 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장, 샤프론 어머니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가게' 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기업으로 나눔과 순환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년 9월 미국 LA에 첫 국외매장을 개설하고, 이어 국외 2호 매장을 동남아 지역의 허브인 자카르타에 개설하게 되었다.

한인회 조규철 수석 부회장은 "자카르타 1호점 개설은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의 확산과 나눔과 순환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적 사회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신선한 도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고 말했다.

LA 최영혜 대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한 이곳이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며 개점을 축하하여 주었고, 홍명희 이사장은 "아름다운 나눔과 순환 정신을 전 아시아의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 며 "아름다운 가게에서 참여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나누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자카르타점은 각층 넓이 48㎡의 3층 건물 매장에서 교민들이 기부한 의류, 신발, 가방, 완구, TV 등 2천여점을 갖추고 판매를 시작했다. 운영수익금은 한국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해외 소외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 보유한 은행계좌(예·적금 등) 및 증권계좌

□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함

인도네시아 함발랑 생태교육 모델숲 본격 운영

산림청은 4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함발랑(Hambalang)에서 줄키플리 하산 산림부 장관, 밤방 수꾸마난또 국영영림공사 사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함발랑 생태교육 모델 숲(Eco-edu Forest)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함발랑 생태교육 모델 숲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기숙사 2동, 식당, 사무실 2동, 연구실 1동 등 총 10개 동으로 조성됐다.

이 숲은 현지에 사는 우리나라 학생, 인도네시아 현지학교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장소로 쓰인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두 나라간 산림협력사업으로 만들어진 함발랑 생태교육모델 숲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배움터로 활용된다" 며 "함발랑 생태교육 모델 숲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산림휴양 문화와 산림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숲 조림현장방문

신원섭 산림청장이 남성현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장과 4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까뿍 해안 망그로브 숲을 방문해 대나무 통발을 설치하고 뻘흙과 유기질 비료를 넣은 후 망그로브 나무를 심고 있다.

이 망그로브 숲은 해수 범람으로 인한 홍수와 바닷물의 오염 예방과 생물의 다양성 연구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인도네시아외환은행 쯔룩 출장소 개소식

땅그랑찔레곤 소재 고객에게 다양한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
자바 서부지역 전략적 거점 확보 및 네트워크 강화

인도네시아외환은행(은행장 조용우 / www.kebi.co.id)이 1일 땅그랑 지역 쯔룩(알람 수뜨라 지구)에 세번째 출장소를 열고 본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외환은행은 이번 쯔룩 출장소 개소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기존 본점 영업부, 찌까랑출장소, 끌라빠가딩출장소에 이어 총 4개의 영업망을 갖추게 되어 자바 서부지역의 전략적 거점 확보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출장소가 위치한 쯔룩은 자카르타 서쪽 30km 에 위치한 위성도시로 신발 및 섬유업종 등 약 200여개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또한 인근 찔레곤에 포스코 제철소가 금년 말 준공예정이어서 많은 협력업체의 진출이 예상되는 곳이다.

인도네시아외환은행 조용우 법인장은 오프닝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외환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1990년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 한국기업들의 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교민기업에게 다양한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구어 왔다” 고 말했다.

이어 조 법인장은 “쯔룩 출장소는 이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체, 현지기업 및 교민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향후 진출할 한국계 기업체에게 든든한 금융 길잡이가 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기엽 한인회장, 김완기 IPCR(조선내화)부회장, 마용도 (주)용마회장, 윤덕일 POSCO본부장 및 3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쯔룩 출장소에서는 통장개설, 입출금, 정기예(적)금, 인터넷뱅킹가입, 계좌이체, 국내외 송금, 환전, 대출 수출입상담, 대출 및 수출입 관련 서류 송달 등 업무를 진행한다.

▲ 6월28일 하나은행 KBN Cakung점 개점

하나은행, 롯데백화점 · KBN 지점 개설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PT Bank Hana)이 자카르타 롯데쇼핑 애비뉴지점과 KBN지점을 각각 개설했다. 애비뉴지점은 꾸닝안 지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 27일 개설됐고, KBN지점은 수출보세구역인 KBN에 28일 개점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계 은행 해외 현지법인 중 가장 많은 32개의 지점을 보유하게 됐다.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현지법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최창식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은행장은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계 은행 중 총대출, 총예수금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며 "그동안 현지화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많은 현지인들이 하나은행을 직접 찾아오고 있다" 고 말했다.

▲ 27일 자카르타 꾸닝안 지구 롯데쇼핑애비뉴점 개점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포럼

▲ 축사하고 있는 부디오노 부통령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7월 4일(목) 오전 인도네시아를 방문,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을 예방하고,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통신정보기술부와 각각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최우선 협력국가가 되었다.

유정복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패러다임'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임을 강조하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 강화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디오노 부통령도 "행정개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인도네시아 30여개 중앙 부처의 협업을 위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 며 한국과의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협력 강화에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날 유장관의 부통령 면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아부바카르(Azwar Abubakar) 행정개혁부 장관, 띠파뚤 슴비링(Tifatul Sembiring)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을 비롯하여 무려 30여 명의 장 · 차관들이 참석해 양국의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오후 자카르타 중심부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인니 수교 40주년 기념 전자정부 협력 포럼' 이 개최되었다.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협력 MOU 체결에 따라 실질적 협력 모색을 위해 개최된 동 포럼에는 인도네시아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정개혁을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 포럼에서 안전행정부 서보람 전자정부정책과장 등이 한국 전자정부 발전 경험 및 우수사례 및 조직 · 인사 시스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LG CNS, 롯데정보통신, KCC 정보통신, 위니텍 등 국내 기업의 홍보 전시관이 운영돼 실질적인 전자정부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나라다.

유정복장관은 이번 인니 방문의 의미와 관련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의 최우선 파트너가 된 만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전자정부 협력범위를 확대 · 발전시키고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월드옥타, 제6기 차세대 무역스쿨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자카르타 JS Luwansa Hotel and Convention센터에서 열린 제6기 차세대 무역스쿨에서는 50명 청년들이 한데 모였다.

대회 첫날 강희중 회장은 'WORLD-OKTA와 GLOBAL NETWORK'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국제적 무역 감각훈련을 쌓아 네크웍킹해야 한다"며 "월드옥타는 세계적인 조직체로서 여러분을 꿈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첫날 둘째날 강의는 송유황 코트라 관장의 '창조경제와 무역진흥기관의 역할', 키움증권 이진혁 사장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우리은행 김용욱 이사의 '여신실무', 외환은행의 이준규 부장의 '외환시장의 이해 및 위험관리', UIN 대학교 안선근 교수의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와 적응 방법론', 하석수 사장의 '기업의 경쟁력과 마케팅의 역할', 글로벌토탈 권중 사장의 '무역실무개론', 이동균 의학박사의 '회사 조직과 건강관리' 강의가 이어졌다.

3일차에는 주)경승의 배응식 법인장의 '땀으로 배우는 현장실무', 한규성 대표의 '인도네시아 투자절차 및 인니 비즈니스 정보', 무궁화유통 김종헌 사장의 '인니 옥타 차세대 설립과정 및 차세대의 역할', 대사관 백승래 관세관의 '인도네시아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으로 강사들의 열강과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했다.

김우재 월드옥타 회장은 차세대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꿈과 비젼을 네트워킹하라"며, "자기처신을 탓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념을 갖고 성공의 확신을 가져라"고 주문했다.

21일 저녁에 열린 제6기 차세대 무역스쿨 수료식에는 50명 전원이 엄격한 수학과정을 이수하고, 선배들과 회원들의 축하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

제6기 차세대 무역스쿨을 이수한 청년들은 "차세대 무역스쿨 프로그램이 유익하니 반드시 이수하라고 선후배들에게 권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카르타 · 반둥 '2013 한국영화페스티벌'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 · 인니 영화산업계와 공동으로 6월 25일(화)부터 6월 30일(일)까지 6일간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한국영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6월 25일 오프닝 행사에는 홍보대사로 선정된 "고령화가족" (개막 상영작)의 송해성 감독, 영화배우 박해일 · 윤제문씨가 초청되었고, 공공외교 홍보대사인 인도네시아 대표 여배우 레발리나 에스 떼맛과 국민배우 크리스틴 하킴이 함께하였다.

이번 영화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영화산업 발전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개막작 <고령화가족>과 폐막작 <7번방의 선물> 포함 총 10편의 우수 한국영화가 상영되며,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영화산업 세미나를 통해 양국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6월 26일(수) 자카르타 블리츠 메가플렉스 퍼시픽 플레이스에서 '한국영화의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현황' 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윤하 팀장, M&E 산업연구소 김도학 박사, <고령화가족> 제작자 김동현 대표, 나경찬 대표 등 양국 영화계 인사들과 영화감독, PD들이 참석, 발표 · 토론을 통해 양국 영화산업 발전과 협력에 대해 의견 교환하였다.

한국문화원은 자카르타에서 한국영화제를 계기로 오는 9월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영화제 2013≫을 개최하게 되어 "국내와 해외에서 양국가의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영화 한류의 확산과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융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상영작품:
고령화가족(2013), 연가시(2012), 도둑들(2012), 명왕성(2012) 마이리틀히어로(2013), 차형사(2012), 남자사용설명서(2012), 7번방의 선물(2012),광해(2012),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012)

2013년 6월 13일 오전 9시 그랜드 인도네시아 몰 내 블리츠 메가플렉스 6관에서 인니 현지 언론과 한인 동포 언론을 대상으로 2013년도 '제4회 한국영화제 개최 관련 기자회견' 을 가지며 영화제 개요 설명 및 상영작 공개, 영화제 관련 정보 제공을 하였다.

6.25 및 북한인권실상 사진전

민주평통서남아시아 인니지부(회장 김광현)와 한국 자유 총연맹 인니 지부(지부장 박동희)가 공동으로 6월21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전하는 '6.25 및 북한 인권실상 사진전' 이 열었다.

6.25 전쟁 63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사진전은 잊혀져가는 6.25동란의 참상과 북한 인권실상을 되새기며 6.25를 모르는 2,3세들에게 한국에 대한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는 한국자유 총 연맹 이동대 고문의 낙동강 전투 현장에서 6.25를 직접 겪고 체험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함께 한 사진 관람에 이어 2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인원위원회 회원들과 인권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박동희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자각하고 북한이 올바른 판단하기를 바란다" 며 "나라의 소중함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학생대표 이 송(9학년)양은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면 한반도에 많은 변화가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무기 등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 전시회는 북한의 만행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가 안보의 경각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현대조형작가전시회

6월 14일 인도네시아국립미술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 조형작가회 (회장 서순오), 현지 언론매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도네시아 현대조형작가 전시회'의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현대조형작가회,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이 함께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후원하였다. 고영진, 김기창, 권용식 등 한국현대조형작가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 32점과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에서 선별한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작품 21점의 회화 작품, 조각상 등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김영선 대사는 "한-인니 우정의 해로 이번 전시회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라며 "한국의 문화정체성과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인들과 우리 동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한-인니 간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국현대조형작가회 서순오회장은 "인도네시아의 대표 작가들과 예술이라는 소통의 도구로 서로 교감하며 서로의 가슴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도 또한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예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

관람자들은 "특정 재료나 기법에 제한되지 않은 다채로운 조형물들을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가 계속되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현대조형작가회는 1994년 세계무대에 한국 현대 예술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 현대 예술 작가 모임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체성과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국내외 전시를 통해 민간외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22일 자카르타에 복합 쇼핑몰 '롯데쇼핑 에비뉴' 오픈

개점 행사에는 재인니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 한인회(회장 신기엽),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쇼핑 (대표이사 신헌),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이원준)등이 참석하였다.

롯데백화점 및 쇼핑몰, 면세점,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이 입점한 롯데쇼핑 에비뉴점은 쇼핑 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있는 '메가 꾸닝안 지역의 복합단지인 '찌푸트라 월드 자카르타' 에 들어서며 이 단지 중 12만4600㎡를 20년 장기 임차해 사용한다. 내부에는 에비뉴점을 비롯해 5성급 호텔 · 사무공간 · 전시장 ·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쇼핑몰(8만8000㎡),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백화점(2만2000㎡)으로 사용된다.

찌푸트라 월드 자카르타는 연면적 53만7800㎡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0층까지 구성됐다. 단지 앞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며 옆에는 왕복 4차선 고가도로와 모노레일1개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해 'K-POP 댄스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오픈 프로모션으로 준비했으며 롯데면세점은 한류 문화 체험공간인 '스타 에비뉴' 의 수익금 1억 루피아를 현지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이사는 "에비뉴점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원스톱 쇼핑과 한국식 쇼핑 문화의 강점을 결합해 동남아 진출의 든든한 거점으로 삼을 것" 이라며 "활발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글로벌 유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겠다" 고 말했다.

롯데 백화점 관계자는 "에비뉴점에서 일할 현지 직원들을 국내로 불러 두 달간 한국식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며 "구매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VIP 고객에게는 생일선물을 보내주는 등 멤버십 서비스도 경쟁 업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 고 말했다.

2013 자카르타 세계일류한국상품전

KOTRA(사장 오영호)는 6월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2013 자카르타 세계일류한국상품전 (KOREAN EXPO JAKARTA, 2013)"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 참가기업으로는 현지 인기품목인 주방용품을 비롯하여 교육, 식품, 미용 분야를 포함하여, 건설붐을 겨냥한 건설, 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IT전자 분야 등 총 9개 분야 65개 중소기업이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4곳도 각자 기업관을 꾸려 참가한다.

현지에서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한 인도네시아 바이어 350여명과 필리핀,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지에서 5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석하여 한국기업과의 교류에 나선다.

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공급의 원천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2억4천만에 달하는 거대인구와 건설경기 붐 등을 배경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마트, CJ뚜레주르, GS홈쇼핑, 쌍방울 등 소비재·유통 분야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KOTRA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도 현지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포화된 국내 내수시장을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년을 맞아 양국간 우의를 다지며 새로운 동반자 관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업 CSR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6월26일 저녁 개최되는 개막 리셉션에서는 중소기업 물품기증식이 함께 개최되며,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방역기, 기업용 DB 솔루션 등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기증된다.

오재호 KOTRA 전시컨벤션실장은 "이번 상품전 개최는 급부상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의 중요성을 우리기업에게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에게 오아시스 같은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JIKS

제6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시상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선종복)는 5월 25~26일 양일에 걸쳐 제6회 자카르타학력경시대회가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국어 박성우(JIKS 12학년) 학생이 재인도네시아대사상을 받는 등 108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은 자료 하단에 첨부함)
자카르타학력경시대회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 입학 전형시에 가산점이나 면접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KOICA, 재인니한인회, KOWIN, KMK, 우리은행, 외환은행, CJ, 코린도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제6회 자카르타학력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1) 국어 수상자 명단

수상 종류	성명	학교
대상(1명)	박성우	JIKS
최우수상 (2명)	박혜민	JIKS
	하효진	JIKS

2) 논술 수상자 명단

수상 종류	성명	학교
대상(1명)	김유경	JIKS
최우수상 (2명)	박혜민	JIKS
	추이영	JIKS

3) 수학 수상자 명단

수상 종류	성명	학교
대상(1명)	김혁준	JIS
최우수상 (2명)	엄민성	JIKS
	김동재	JIKS

4) 영어 수상자 명단

수상 종류	성명	학교
대상(1명)	박성우	JIKS
최우수상 (2명)	최다솜	JIKS
	이정은	JIKS

중등과정 전입생 전형 추가모집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는 2013학년도 2학기 전입학생을 추가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013. 6. 25()~2013. 7. 3(수)
전형일시	2013. 7. 5(금) 08:00~13:00
전형과목	국어, 수학, 영어, 면접
합격자발표	2013. 7. 10(수) 12시
대상	7~10학년

학교 사정상 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www.jiks.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주미 [021-844-4958(Ext.1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IS

JIS 졸업식

(학생기자 권기남)

5월 25일 Jakarta International School의 12학년 학생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식은 학교의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10명의 학생들이 이 날 졸업하였다. 이중 한국인 학생은 남학생 13명, 여학생 17명으로 총 30명이 졸업하였다.

이날 졸업식은 오후 5시에 시작하여 7시에 마무리되었으며 학생들의 축가, 교장 선생님의 훈화,졸업생 전원과 교장 선생님과 악수후 졸업장수여와 졸업모를 던지는 등의 다양한 순서로 이루어졌다.

졸업식이 끝난 후 졸업생들이 부모님과 지인, 그리고 몇 년 후 졸업을 할 후배들의 축하와 꽃다발을 받았다.

졸업생 중 강동혁군이 수석을 차지하여 한국인 뿐 아니라 JIS의 자랑이 되어주었다. 축가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황지영과 김지수가 불렀다.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한국인은 이제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펼칠 자랑스러운 JIS의 얼굴이다.

JIS는 6월 6일부터 8월 14일 목요일까지 여름방학이다. 이 기간 동안 JIS는 학생들에게 JIS academy 프로그램과 다양한 회사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게 된다.

JIS academy는 크게 학교 관련 프로그램과 그 외로 나뉘어진다. 학교의 규칙상 학생들은 인니어와 Health과목을 한 학기씩 수강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JIS academy를 통해 이 수업을 방학 때 대신 수강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외의 프로그램은 JIS의 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 다양한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SAT 등의 공인 시험반도 개강한다. 그외 바리스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취미교실도 있다.

방학 이후로는11학년 대상의 인턴 프로그램도 있다. JIS측에서 AIA생명보험, Grant Hyatt 호텔, ANZ 은행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1주에서 3주간 동안 체험하며 미래의 직업에 대해 선택할 기회를 준다.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한 JIS의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했고, 졸업한 12학년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된다.

인도네시아 실업고 교사대상

'제1기 한국어 교사양성' 수료식

7월 3일, 한*인니 교육문화 교류단은 '제1기 한국어 교사양성과정' 수료식을 위해서 한국 대사관, 한인회,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자, 외국어 교육 관계기관(인니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등을 초청하여 수료식을 겸한 "World Street Festival" 을 개최하였다.

한국어 교사양성은 5월8일 2개월 과정(총 520시간)으로 시작하여 7월 3일 성공적으로 수료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은 자카르타 국제 한국학교에서 대사관, 코이카, 중소기업청, 한인회 등 한국기관 소개와 김밥 만들기, 한국전통놀이, 사물놀이, 한국헤어스타일 배우기 등의 한국문화체험, PT.LG Electronics Indonesia 산업체 방문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총 49명의 수료자 중 최우수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상과 우수상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장관상과 한인회장상이 주어졌다. 또한 코이카, JIKS, PT. Lotte Shopping Avenue,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PT. LG Electronics Indonesia, PT. Amore Pacific, 샤프론봉사단 등 각층에서 다양한 상장과 부상으로 수료자들을 축하하였다.

수료자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원격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 시킨 후 최종 한국어 교사 자격시험을 거쳐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실업고교에서 한국어교사로서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제2기 한국어 교사양성과정은 5개 주요도시에서 개설될 계획이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사 5명을 파견된다.

포토뉴스

자카르타정도486주년

6월15일, 16일, 양일동안 모나스 광장에서 자카르타 정도 486주년 기념행사에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과 한국관광공사(지사장 권종술)가 참여하여 한국을 홍보하였다.

한인회간담

장로회신학대학교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회전문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재학생 11명과 인솔 교수 1명으로 구성된 '목회유형연구' 반이 28일 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방문하였다. 그 단체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역사 (이주한인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현황과 선교및 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인도네시아속의 한인역사를 배우고, 미래의 협력활동에 밑거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승은호 아시아총연회장 겸 동남아한상연합회장

7월3일부터5일 방콕서 대회개최16기 민주평통 부의장도 맡아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겸 동남아한상연합회장과의 대화는 '월드코리안 맑은눈 아프리카 봉사단' 이 아프리카로 보내는 안경 이야기로부터 시작됐다.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승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옷가지를 나눠주는 일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회사 직원이 2만명에 이릅니다. 한국에서 모은옷을 이들에게 여러차례 나눠줬습니다. 이런 나눔운동은 앞으로도 필요하지요."

승회장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옷을 나눠주는 일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직원이 무려 2만명이니, 이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인도네시아는 상하(常夏)의 나라입니다. 티셔츠나 바지가 좋아요. 일년내내 입을 수 있거든요."

승은호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을 경영하고 있다.팜농장과 팜유 가공공장, 조림산업과 목재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다.팜농장은 뉴기니아의 이리안자야에 있고, 조림지는 중부칼리만탄에 있다.팜농장은 여의도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만5천ha. 조림지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그동안 계속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나무는 10년 윤벌제로 합니다. 10년 자란 나무를 잘라내고 그곳에 다시 심지요. 금년부터 자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10년은 심기만 해왔지요."

이 나무로 종이 원료로 쓰는 칩을 만든다고 한다.칩공장도 조림지가 있는 중부칼리만탄에서 오는7월25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소개한다.팜 농장은 나무보다는 좀 빠르다. 팜 나무를 심어서 수확하기까지는 대략 4년이 걸린다고 한다.

"빨리빨리를 모토로 하는 한국기업들이 하기에는 잘 안맞는 분야입니다. 땅 구해서 길닦고 벌채하고 묘목을 심어서 그게 자라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요."

승회장은 팜농장이 지금은 2만5천ha의 크기지만, 이를 15만-20만ha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동중인 팜 크루드오일(원유)공장 뿐 아니라 부가가치 높은 2차 가공의 팜 리파이너리(정유)공장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회장은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를 대표하는 한상기업인이다.오랫동안 인도네시아한인회를 이끈 데 이어,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동남아한상연합회장도 겸하고 있다.

"오는 7월3일부터 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총연총회와 동남아한상대회를 동시 개최합니다. 오전에 한인회총연 총회를 하고, 오후에 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이튿날에는 골프대회와 관광으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당초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3월에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가, 현지 치안사정 등을 감안해서 행사를 미루고, 장소도 태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언젠가 안정이 되면 파키스탄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회장은 아시아한인회총회와 동남아 한상대회에 올해 100여명이 참여한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한상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지요. 내년행사 후보지로는 라오스가 떠오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수도 있어요."

승회장과 인터뷰 하던 날,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승회장이 16기 평통 해외부의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민주평통은 그간 해외에서는 미주와 일본에 부의장을 뒀으나 이번 16기 평통에서 이를 5명으로 확대하고, 미주(김기철) 일본(오공태) 아시아(승은호) 중국(이훈복) 유럽(박덕)에 부회장을 임명했던 것이다. <World Korean>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235-237
Bandung
235회-237회 문화탐방-Bandung
일시: 2013년7월15일(월)-17일(수)
15일 아침 6시 연구원에서 출발
장소: 찌위데이 - 반둥 진행: 팀장 박선이
접수 : 0857 10810495 (SMS) / 021 78839597
lovekoin@hotmail.com / ballonjoa@hanmail.net

238회 문화탐방
일시 : 2013년 7월 20일 (토), 오전 6시 - 오후 5시
6시 연구원에서 출발
장소 : 찌보다쇼 등산로 (폭포) 진행 : 부원장 신유희
접수 : 0857 10810495 (SMS) / (021) 78839597
lovekoin@hotmail.com / ballonjoa@hanmail.net

239회 문화탐방
눈시린 초록 Gunung Mas 차밭
일시 : 2013년 7월 24일 (수), 오전 6시-오후 4시
7시 연구원에서 출발
장소 : 뿐짝 (차밭, Melrimba 가든, Puncak Pass,
국립꽃박물관)
진행 : 팀장 박선이
접수 : 0857 10810495 (SMS) / (021) 78839597
lovekoin@hotmail.com / ballonjoa@hanmail.net

빠삭 부미(Pasak Bumi)

숲 속의 비아그라

일반명: 빠삭 부미(Pasak Bumi인도네시아), 통캇 알리(Tongkat Ali 말레시아)
과　명: 소태나무과(Family: Simaroubaceae)
학　명: *Eurycoma longifolia* Jack
기원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서식지: 수마트라, 보르네오 섬 인근의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지의 저지대 우림지역
이　용: 말라리아 예방, 남성 호르몬 분비촉진(정력제), 해열제, 근육강화
생김새: 다년생 상록수, 약 15미터까지 자라며. 줄기는 호리호리하고 멀리서 보면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 처럼 보인다. 잎은 줄기 윗부분에 촘촘히 모여난다.
작은 피침형의 소엽(15-40개)들이 깃꼴복엽(20-40cm)을 이룬다.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얼마 전 필자가 소속된 탐사대가 유용한 자원식물을 조사하기 위해 칼리만탄의 한 숲 속을 헤매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현지 출신인 젊은 가이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는 여느 젊은 친구들과 다름없었지만 다약(Dayak) 부족의 후손으로 이런저런 어릴 적 일화들을 자랑삼아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문뜩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위해 어떤 나무의 껍질을 자주 달여서 먹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말라리아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그 가이드는 지금도 자신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무리 모기에 많이 물려도 끄떡없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이 내린 만병통치약

신비한 효험을 지닌 이 나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천으로 널린 이 식물은 다름 아닌 '빠삭 부미' 였습니다. 이 식물의 유명세를 극히 알고 있었으나 야생에서 본 적은 없었기에 이 식물과의 조우는 큰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빠삭 부미는 말레이시아 어로 '통캇알리'

라 합니다. 통캇알리(Tongkat Ali)란 '신의 지팡이' 란 뜻이며 자생지에서는 통캇알리의 뿌리가 신이 보내준 귀한 약재로 만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보르네오 섬에 흩어져 살던 원주민들이 말라리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 껍질이나 뿌리를 약재로 사용했는데 부수적인 효과로 자손번성을 위한 정력강장제로서의 효과가 있었고 부족들만의 은밀한 비법으로 전해져왔습니다.

정력제? 만병통치약?

빠삭 부미는1980년 이후 말레이시아 의학계가 이 식물의 발기부전 개선 및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자양강장 식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빠삭 부미의 발기 및 원기강화 효능이 의약품보다 더 우수하다는 실험동물 임상실험 결과가 이어졌는데 이는 성욕과 성 기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을 매우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2년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소와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와의 공동연구결과 항암과 항에이즈에 기존의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전 세계 의학계에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삼과 같은 말레이시아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발 빠른 기업들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는 관련 제품들이 쏟아졌고 이를 구매한 관광객이나 현지 교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도 알음알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삭 부미(통캇알리)가 들어간 제품 중에는 커피, 음료수, 초콜릿, 스틱 바, 캡슐, 진액, 액체 스프레이, 연고 등 그 종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 중 커피믹스와 비슷한 알리 카페는 여행가이드나 현지인들이 권하는 유명관광지의 필수 구매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최근 정력증진 효과에만 정신이 팔린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불법판매와 반입이 인터넷과 남대문시장 등 수입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단속

에 나섰고, 한국의 식약청에서는 지난해 '통캇알리 함유제품 소비자 구매자제'를 당부하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식품으로서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적합하지 않아 현재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한국과 선진국에선 식품원료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캇알리 함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사례와 부작용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납(Lead) 성분이 허용치 이상이거나 유통과정 중에 다른 가짜 이물질과 섞이는 경우, 독성이 강한 유사 종과의 혼용되는 예도 있습니다. 근육강화와 생성에 도움이 된다하여 보디빌더들이 많이 섭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 복용 시 정신 불안이나 불면증에 시달기도 하며 정서적으로는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욕의 지나친 증가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대량 복용 시 면역기능이 약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재 가치 연구

빠삭 부미는 전통적으로 정력제뿐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말라리아, 피부염, 관절염 등의 예방 및 치료 해열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왔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빠삭 부미 뿌리의 여러 성분 중에는 폐암이나 유방암을 일으키는 특정 암세포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항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항말라리아제나 항바이러스제 항염제로서의 연구와 개발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정력증진제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맹위를 떨칠 때 치료제로 사용된 국민상비약 '타미플루'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붓순나무(Illicium verum) 열매인 팔각(八角,Star anise: 중화요리에서 많이 사용)을 원주민들이 감기나 관절염 완화를 위해 달여먹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약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빠삭 부미에서도 어떤 신약이 개발될지 아직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따만미니 전통가옥관

제 12 차 헤리티지탐방

김희진 (자카르타 거주)

제12차 헤리티지 탐방으로 이번에 찾아간 곳은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따만미니 전통가옥관 12곳이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부지런히 가니 8시반에 도착했다. 너무 날씨가 더워지면 힘들어져서 좀더 덜 뜨거운 아침부터 탐방에 나섰다.
9시에 12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함께 탐방을 시작했다. 헤리티지 탐방에서는 토요일에는 탐방자가 30명이 넘는데, 평일에는 탐방 참가자가 적어서, 평일에 개최된 오늘 같은 행사는 이런 문화재를 알뜰히 샅샅히 살펴보기에는 아담하고 좋은 인원이었다. 자원봉사로 안내를 맡아준 고혜숙 선생님은 국립박물관의 자원봉사 안내요원이다. 설명을 들으면서 다니니 너무나 재미나서 귀도 마음도 모두가 즐거웠다. 유익한 설명을 해주신 고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곳 탐방은 어려웠을 것이다. 헤리티지에서 탐방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온 소책자도 전통가옥과 여러 문화 유물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어서 탐방을 하며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첫번 째로 간 곳은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잠비 전통 가옥관이었다. 남부 수마트라 지역 가옥이 여러 채 있었는데, 참 보기에 좋았다. 잠비관 뒤쪽으로 '벙꿀루" 가옥관이 있었다. 수마트라의 대부분의 지역은 물과 습기가 많아서 기둥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

예전부터 수마트라에서 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잠비지역의 집 내부는 금장식으로 모두 번쩍번쩍~해서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다.

또 하나 다른 가옥과 다르고 재미있었던 점은 집 내부 어딘가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는 곳을 마련해둔다는 점이 특이했다.
이어서 서부 수마트라 전시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미낭카바우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족은 이슬람교이면서 모계사회였다고 한다.
집의 형태는 보니 곡선이 강조된 모양이였는데 예

전 자바족과 땅전쟁을 할당시 어린 물소를 이용해 싸움에서 이겼다고 한다. 그래서 집모양도 물소뿔 모양을 접목했다고 한다. 미낭까바우의 까바우는 물소란 의미이고 미낭은 승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집의 지붕뿐만 아니라 집 안밖의 벽의 장식에 잔잔한 꽃무늬 조각을 넣어서 굉장히 눈에 띄고 이뻤다. 집안쪽으로 들어가보니 왼쪽에는 신혼 부부 방과 결혼식 장면이 있고, 맞은편에는 여자아이들의 방으로 꾸며져있다. 모계사회라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 어느 정도 크면 사원으로 보내져서 자랐다고 한다.

수마트라 가옥이 너무 웅장하고 특이해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남겼다.

이번엔 같은 수마트라 지역에서도 바딱족의 가옥으로 이동했다. 카메라로 담은 가옥은 바딱족중에서 토바호수지역인데 장식은 많지 않지만,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사진을 가만 보면...집앞면에 엄마 젖가슴 모형을 두 줄로 볼록하게 장식했는데
이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한다. 두마리의 도마뱀장식은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징하는것이고, 얼굴 모양의 장식은 선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깔리만탄섬의 루마빤장이 아주 멋있었다. 150 미터에 이르는 긴 집 때문에 인니어로 루마 빤장이라고 하고 “라민”이라고 불리우리고 한다. 다약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롱~하우스라고 하는 이 가족은 여러 가족이 다같이 모여사는 공동주거지라고 한다. 적을 쉽게 물리치고, 산골 정글에서 함께 살아가기 쉽도록 이런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긴집 옆에 위치한 이 큰 기둥으로 받쳐진 움막 같은 집은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두는 곳이었다고 한다.

집안에 위치한 계단인데 그 모양이 특이하고 신기했고 오르고 내리기에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좁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저 땅과 집을 연결하는 선처럼 보였다.

깔리만딴 띠무르 지역으로 옮겨갔다. 딱 보이는것과 같이 건물벽에 그림이 특이하고 재미있었다. 특히 벽장식의 그림 속에 하얀 색의 무늬가 많이 있었다. 전시관으로 들어가면서 하얀 무늬가 무엇을 나타낼까 하고 누가 질문을 던졌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띠무르 지역의 상징은 오징어라고 한다. 오징어는 여러 개의 다리가 합쳐져서 머리 하나로 통합되는 데서 그 의미를 따왔다고 한다.
집안 온통이 다 오징어 상징 그림과 조각이 담겨져있었다. 모든 오징어가 가운데 눈이 익었다. 깔리만탄 중부에 위치한 뚱아지역도 특이했다.

깔리만딴 지역의 가옥들은 대부분이 강이 많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옥이 땅과 많이 떨어진 위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 것 같았다.

이곳은 쌀이 주요 곡물이라 쌀을 재배했을때 사용했던 “아니 아니” 라는 벼베는 도구들과 따맹이라고 하는 방패 등 지역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파푸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이 배위에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거였다. 배가 너무 작다고 하니…. 저 배는 사람이 서서 이동하는 것이라 좁고 작게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

에전 정글의법칙에서 소개되서 유명해진 파푸아 지역인데, 와서보니 너무 멋진 크고 웅장한 가옥이 몇 채 있어 놀랐다. 하지만 이건 가옥이 아니라 마을 회관 같은 곳이라고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손기술이 아주 훌륭하다고 한다. 특히 아스맛 부족은 조각에 아주 뛰어난 솜씨가 있어서 선조조각상도 참으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간단한 조각품이라던지 가면의 모습이 너무 정교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파푸아의 가옥은 역시 예상대로 많이 초라했다. 마지막 코스인 슬라웨시섬의 토라자지역으로 가보았다. 다들 슬라웨시 가옥이 너무 이쁘다고들해서 기대 완전 많이 했다. 다들 햇빛에 구경하느라 돌아다니며 기력이 다소 떨어질 때 쯤, 슬라웨시 이쁜 가옥을 구경할 마음으로 들떠있었다.

토라자 똥꼬난집은 역시 참 특이하고 아름다웠다. 똥고난은 슬라웨시 토라자에 있는 지붕이 치켜 올라간 모양으로 집 벽이 화려하게 조각된 집이다. 이 집들은 모두 조상들이 온 곳인 북쪽을 향해 지어진다고 한다. 가옥의 중심기둥에는 부를 상징하는 물소 뿔로 장식을 해 놓았는데.. 물소뿔 수가 많을수록 부를 나타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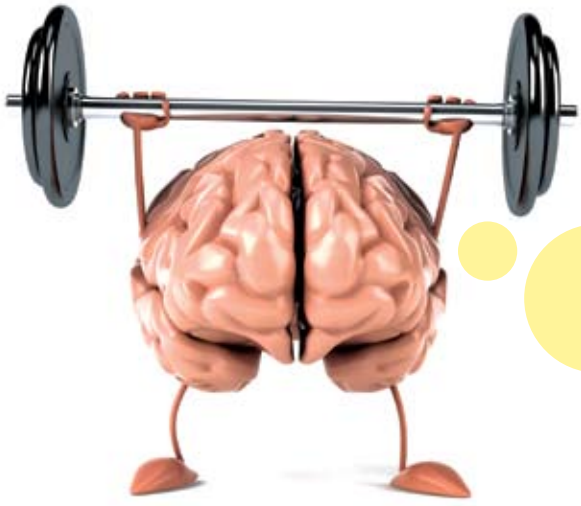
부를 상징하는 물소가 집벽면에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수닭이 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잘 만들어놓아서 놀랄 정도였다.

똥고난 집 바로 옆에는 산이 있는데, 이 지역은 가족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시체를 한방에 두고 생활한다고 한다. 그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뒤에 산에 구멍을 만들어 시체를 보관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멍 앞에 놓아둔다고 하는데... 마치 실제로 그 지역에 직접 가서 보는 것 같이 재현해 놓았다.

이번 탐방으로 12개의 전통 가옥관을 다녀보니 지역마다 참 다른 문화와 특색이 너무 재미있었다.

3시간동안 삐질삐질 땀을 닦으면서 인도네시아 전부를 다 볼수는 없었지만, 지역별로 대표가 되는 가옥을 보니 그들이 살았던 전통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배울수 있어 너무 뜻깊은 탐방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처음 왔을 때 첫 탐방이 헤리티지 사진반에서 가본 따만미니였는데, 마지막 장소도 헤리티지 탐방의 따만 미니로 마무리 하고 이번 달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다들 너무 감사했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 주신 기억 소중히 잘 간직하고 싶다.



뇌를 죽이는 습관 VS 뇌를 살리는 습관

인체 중 가장 신비롭고도 중요한 기관이다. 뇌의 무게(성인 기준)는 몸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20%를 사용하고 있다. 인체의 모든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경을 집중해 일을 마치고 난 뒤 심한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그만큼 대량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뇌의 부피는 20세를 시작으로 일 년에 0.2%씩 준다. 나이가 들면 뇌신경의 전달 속도도 느려진다. 그러면 치매 같은 뇌질환 위험이 올라간다.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일우 교수의 도움말로 뇌를 죽이는 습관과 살리픈 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만성적 스트레스 vs 일시적 스트레스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업무에 대한 지나친 걱정, 교통체증, 나쁜 인간관계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조금씩 뇌를 파괴하고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냅스를 손상시켜 결국에는 뇌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가 분비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은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뇌건경에 이롭지 않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스트레스 환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시적 스트레스의 경우는 뇌기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적절한 긴장을 뇌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나쁜 감정 vs 좋은 감정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은 뇌 건강에 나쁜다. 감정은 지적인 능력이나 이성을 담당하는대뇌 피질에 비해 훨씬 하부의 뇌에서 조절되고 있지만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는 회로에 의해 대뇌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다. 나쁜 감정은 뇌의 신경전도를 방해해서 뇌에 기억력 저장고의 정보 처리능력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건강한 뇌의 지름길이다. 명랑하고 밝은 감정을 가질 때에는 신경전도가 억제됨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개인의 기억 속에 보유한 모든 처리능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므로 두뇌 능력이 우수해진다. 따라서 항상 밝고 긍정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운동 포기 vs 운동 습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뇌 건강에 좋지 않다. 운동은 뇌세포를 자극해서 치매 위험을 낮춘다.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왔다. 또, 뇌의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뇌졸중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운동이 예방하는데 이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뇌에 활력을 선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칼 코트만 박사는 운동을 계속할 때 신경세포의 성장이 운동기능을 통제하는 뇌 부위뿐만 기억력, 추리력, 사고력, 학습능력을 통제하는 부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탄산음료 vs 비타민

과자, 빵 같은 밀가루 음식,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기름진 음식을 비롯해 합성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뇌 건강에 좋지 않다. 또한, 등 푸른 생선에 다량 포함돼 있다고 알려진 DHA는 뇌세포에 많이 든 지방산이라는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두뇌의 기능회복에 좋다거나 치매에 좋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외에 뇌에 좋다는 많은 식품과 보조식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은 없다.

그러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보조식품 섭취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비타민이 뇌기능을 개선시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기능의 퇴보를 막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있다. 그 중에서도 항산화작용을 가진 비타민 A, B, C, E와 최근 개발된 보효소 Q10 등이 뇌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 녹황색 채소, 마늘, 당근 등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도 도움이 된다. 초콜릿도 항산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서 인지 기능을 올려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져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멍하게 있기 vs 새로운 것 배우기

뇌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TV 보기는 뇌 건강에 이롭지 않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용을 뇌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상 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 있는 것도 뇌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뇌 건강에는 이롭지 않다.

반면, 독서, 게임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뇌를 자극하면 뇌세포 시냅스의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낱말풀이나 고스톱 같은 게임이 뇌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는 수많이 나와 있다.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연 재

우리 인생의 쉼표

행복 에세이

서 미 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이른 더위가 한창 진행중인 6월의 어느 아침, 눈이 황홀하리만치 초록으로 뒤덮인 창밖 숲속을 바라보며 창문을 활짝 열고는 매일 아침 울어대는 새소리를 기다린다. 까마득한 어느 옹벽 위에 잡목과 잡목사이, 녀석은 새벽을 알리듯 매일 그 자리에서 쉰 목소리로 꾸우~ 꾸우~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노래한다.
그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그의 목소리와 퍼덕이는 날개 짓을 기억하고 있다.
저기 보이는 숲속 어딘가에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는 걸까. 새들이 잠을 자는 곳은 어디일까. 숲에서 가까이 살며 숲을 바라보는 일은 날마다 새소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일처럼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가라는 쉼표가 되어준다.

푸른 숲의 공기를 마시다보니 미지의 세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으로 충천되는 느낌이다.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세월의 기다림이요, 시간의 기다림이기도 하다. 기다림은 지루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기에 참고 견딜 수 있다. 기쁨과 슬픔이 가져다주는 마음속의 힘이 있기에 꿈과 희망의 탑도 쌓아보고 명상 중에 떠오르는 중용과 지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말이다.
마음의 쉼터에서 영감을 얻는 즐거운 열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자아실천이기에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렇기에 때로는 긴장된 삶속에서도 그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십 년 주기로 쉼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고난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모든 삶이 승승장구만 한다면 고개 숙이고 사는 이치를 모를까봐 주기적으로 신의 망치가 되어 톡톡 이마를 치고는 달아난다.
맞을 때는 그것이 천길 낭떠러지인줄 알았는데 절망하지 않고 돌아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곤 한다.

마침표는 끝을 내는 일이지만, 쉼표는 또 다른 길로 연결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적도의 기온에 오래 길들여져 있던 탓인지 한국에만 오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감기를 달고 산다. 과로가 겹쳐 최근에 병치레를 많이 했다.
목감기, 두통이 사라지질 않아 병원 조제약을 오래 먹었다.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두통이 또 찾아왔다. 잘근잘근 뇌의 세포들을 물어뜯는 것 같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신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져 머리가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밤, 비몽사몽간 정신을 놓고 있는데 아들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의사는 급하게 진통제를 놓고 이것저것 체크를 하더니 입원수속을 하라고 했다. 뇌신경을 살펴보기 위한 여러가지 검사를 해야 한단다.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미끄러지듯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 링거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하나 둘 뇌리를 스친다.
그동안 수시로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했었다. 아플 시간보다는 현재의 삶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쏟았다. 건강은 언제나 지켜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탓인지 늘 뒷전이었고 유보대상이었다.

밤 열두시가 다된 시간인데도 응급실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병원이 떠나갈 듯 울어대는 아이를 안은 엄마, 치매로 정신을 놓고 지탱할 힘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피투성이가 된 사람 등, 그들의 얼굴은 모두 먹물처럼 깊은 어둠이 깔려있다. 나는 눈을 감는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내게 있어서 삶이란 언제나 희망이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라 믿었다.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집중하다보면 언제나 내 자신에게 만족한 삶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하지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처음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 링거액이 참 더디게 떨어진다.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마치 한 시간이나 되는 듯 길게 느껴진다.

다음 날부터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러가지 검사가 시작되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암담하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감기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면 심한 두통을 유발하고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하여 뇌신경조직을 정밀히 검사했다.
다행히 걱정될만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건강상태도 아니었다.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 두통과 함께 동반되는 무력감은 더 심해졌다.
의사는 기력이 많이 소멸한 탓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우선 두통을 가라앉히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를 하기위해 며칠간 입원을 해야 했다. 뜻하지 않은 병원생활을 끝내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옷깃에 스치는 바람이 제법 열기가 가득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이미 회색빛 구름에 덮여 장마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여름을 재촉하고 있다.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이만큼 와있었던가.

집으로 향하는 차를 타고 가다보니 과속 방지턱이 보인다. '위험지역이니 속도를 줄이시오' 라는 신호이다. 과속 방지턱 앞에선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빠

른 속도를 유지한 채 방지턱을 넘다가는 차가 휘청거리듯 건강에도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길에서 만난 과속 방지턱처럼 지금 난 내 삶의 과속 방지턱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들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우리 인생의 쉼표는 조용히 타이른다. 삶은 단지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순간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일도 중요 하다고. 미래의 행복에만 골똘한 채 현재의 자신을 혹사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쉼표 같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바람이 가라앉아도 잎은 여전히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서도 뿌리는 숨을 쉬고 있듯이 자연인 식물에게도 쉼표가 필요한 것처럼, 오랜 호흡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것이 탄소동화작용이요, 낙엽의 근원인 것을, 사철 푸르기만 하고 지지 않는 잎이 어디 있으랴. 하물며 자연이 그러한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을 통하여 얻는 물리적인 휴식인 수면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잠의 미학이야말로 우리 삶의 쉼표를 대신할 그 무엇은 없을 것이기에.....
밤이 있어 잠이 있을까. 잠이 있어 밤이 있을까. 일상의 고된 노정에는 잠과 꿈이 있기에 삶이 영위되고 존속한다. 목숨을 지탱해야하는 우리인생에 일만 있고 잠이 없다면 무슨 수로 살아갈 힘을 축적할 것인가. 수없이 불면의 밤을 뒤채인 사람만이 잠의 고마움을 안다. 밤과 숙면은 우리 생명의 연장수단이기도 하지만 쉬어가라는 뜻의 동의어(同義語) 이기도하다.

밥솥에서 밥물이 푸르르 끓는다고 해서 금방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선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삶을 지탱하기 위한 진정한 휴식은 바로 인생의 쉼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루하루 시간의 잣대를 건너와 인생의 나이테를 장식하기에 건강한 인생 전체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더 늦지 않게 인생의 쉼표를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시간의 길 위에서 더러는 느긋한 여행을 실천해 보고 싶다. 여행이야말로 삶이 한 박자 쉬어가는 자리, 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 속에서 미처 몰랐던 자아의 현 주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 달력상 해마다 라마단휴일이 앞당겨진 탓에 올해의 라마단휴일은 여름방학 일정에 끼어있다.
인생의 쉼표가 느껴진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떠나보리라. 이렇듯 저렇듯 삶의 쉼표를 무시하던 그동안의 내 어리석음을 다독이며 낯선 길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그리움의 풍경을 담아 오리라. ~~

인도네시아 역사의 수수께끼(3)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dailyindonesia.co.kr)

지난 호에 이어 인도네시아 역사와 관련해 궁금했던 점들을 '인도네시아 역사의 수수께끼(3)'으로 연재한다. 이 글은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매리 하이두즈 저/ 박장식 · 김동엽 공역)와 '동남아시아사'(최병욱/미래엔출판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유

네덜란드와 영국이 인도네시아 군도와 말레이반도를 놓고 각축을 벌이다가 1824년에 동남아시아에서 영향권역을 구분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영국은 오랜 기간 동인도회사의 식민지였던 수마트라섬의 벤꿀렌(Benkulen, 현재 벵꿀루)에서 철수하고, 네덜란드는 바따비아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였던 말라까를 영국에 양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군도는 네덜란드 그리고 말레이 반도는 영국의 영향력 하에 놓인다.

영국이 바따비아 대신 개발한 무역항 싱가포르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네덜란드 소유지의 일부를 점령하고, 1811년에 영국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를 자바의 부총독으로 임명한다.

이후 영국이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후, 래플즈는 1819년에 바따비아를 대신할 동남아시아 물산의 중계항으로 말레이 반도 끝단에 위치한 작은 포구였던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중국인과 다른 이주자들을 끌어들여서 기지를 건설한다. 이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인과 중국인의 경제적 근거지가 된다.

깔리만딴섬에 3개의 국가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18세기에 깔리만딴섬에 여러 개의 기지를 구축했지만, 회사 상황이 나빠지자 대부분을 방치하게 된다. 이후 1841년에 영국 탐험가 제임스 브룩(James Brooke)이 사라왁 지역에 술탄국을 세우고 라자(Raja, 왕)가 된다. 브룩 가문은 2차 세계대전까지 이 지역에서 왕국을 유지한다.

한편 별도의 영국 합자회사가 보르네오 북부의 사바 지역에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두 지역은 1963년에 말레이시아에 편입된다.

깔리만딴 서북부에 위치한 또 하나의 독립국가인 브루나이 술탄국은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84년에 독립한다.

선진국에게 동남아시아 식민지의 의미

유럽인들이 16~17세기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때는 향신료 구입과 중국산 사치품을 거래하려는 상인들과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선교사들의 의지가 컸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만들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식민지를 운영한다.

산업국가로 변모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은 본국 산업에 공급할 광물과 플랜테이션 작물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고, 식민지에서는 광산과 플랜테이션이 성장한다.

한편 초기에 부임한 유럽의 식민지 관리들은 대개 독신으로 건너와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주변 환경에 적응시켰던 반면, 19세기 이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이주해 살면서 열대지역 관습을 거부하고 서구 양식으로 생활한다. 20세기 초에는 서구식 학교가 본국과 똑같은 교과과정으로 설립돼, 식민지 관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교육하게 된다.

자바 커피 재배가 시작된 시기는

동남아시아는 1800년부터 약 150년 간 농경기술이 발전하고 대규모 농지 개간이 이루어져서 농작물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지로 변모한다.

19세기 초만해도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덮고 있던 삼림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유목' 적인 화전민이 정착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촌락이 새로 형성된다. 또한 환금작물 즉 수확한 농산물을 국제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게 된다.

식민정부는 자바에서 1830년부터 1870년까지 강제 경작제도(Cultivation System)를 실시하고 농민들에게 고무, 사탕수수, 인디고, 커피 및 기타 수출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

노동자를 일컫는'꿀리'의 유래

18세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광산과 플랜테이션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하는데, 이들을 꿀리(kuli)라 불렀다. 지금도 꿀리는 선하역 인부 등 막노동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중국인들은 대규모 집단으로 작업했고, 조직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세해, 광산주 또는 농장주들이 선호했다. 반면 현지인들은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했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만 있으면 고생스러운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노동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인 노동자 중 일부는 방까와 블리뚱에서 금과 주석을 채굴했고, 다른 일부는 리아우 군도의 플랜테이션에서 후추와 아선약(Gambir)을 재배했다.

광산과 플랜테이션에서의 노동은 꿀리의 20%가 부상이나 풍토병으로 사망할 만큼 고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대공황으로 꿀리 시대가 막을 내려

중국 정부가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분개해 꿀리의 송출을 통제했고, 고용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인 꿀리가 감소하게 된다.

이후 인구밀집지역이었던 자바 지역의 빈곤층 여성들이 플랜테이션의 꿀리가 된다. 수마트라 담배 플랜테이션들이 1920년대에 자바 여성을 노동자로 받았고, 광산 분야에서는 20세기 이후에 기계화가 진행되고 노동강도가 감소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중국인을 대체하게 된다.

1930년대 대공황 중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광산과 플랜테이션이 위기에 봉착하고, 수천명의 꿀리들이 해고를 당하면서 꿀리의 이주시대가 막을 내린다.

방까와 블리뚱에 중국인이 많은 이유

해외 노동력들이 특정 지역에 유입된 후 소수지만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을 경우 그 지역의 종족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주석 광산으로 유명한 수마트라 동부의 방까와 블리뚱 지역의 경우, 1930년 무렵 인구의 4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꿀리로 온 중국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정착해 현지의 종족 구성을 바꾼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꿀리의 관문이었던 싱가포르도 중국인이 다수 종족이 됐고, 말레이 반도에서도 특정 지역은 말레이인이 소수 종족이 됐다.

네덜란드도 중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920년대 이전까지 금융기관이 없었고, 대신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대부업과 중간무역업자 역할을 했다. 현지 농민들은 덜 익은 농작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소작농과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에게 농지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농민들은 농산물만 담보로 할 수 있었고 농지는 현지인에게만 팔 수 있었다.

한편 농지 소유권에 대한 제제가 없었던,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1930년대 대공항으로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지주와 인도인 또는 중국인 대부업자에게 토지를 빼앗겼다..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 발리의 뿌뿌딴과 아쩨의 쁘랑사빌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 진출 초기에 자바와 말루꾸 그리고 일부 해안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19세기에는 롬복, 발리, 아쩨 등과 잇따라 전쟁을 벌이고, 다른 지역은 지배자들을 설득해 식민지에 편입하도록 만듦으로써 인도네시아 지도를 완성해 간다.

발리와 롬복 주민들은 네덜란드 군대가 공격해오자 뿌뿌딴(Puputan :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으로 저항했다. 현지 왕실구성원들과 가족들이 적들의 총구 앞에 서서 싸우다가 죽으면 다음 줄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싸우다 죽고 이를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항했다.

아쩨는 수마트라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네덜란드의 공격에 가장 강하게 저항했다. 네덜란드 군대가 1870년에 아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 1874년에 비교적 손쉽게 수도와 왕궁을 점령했다. 하지만 이슬람학자들이 침입자에 대항해 게릴라전을 시작하고, 적의 손에 죽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지하드(Jihad. 성전) 또는 쁘랑사빌(perang sabil. 인도네시아어로 성전)을 촉구했다.

네덜란드 군대는 1913년에 아쩨를 평정했으나 이후에도 소규모 전투가 계속됐다. 아쩨 전쟁은 역사적으로 가장 긴 식민지 전쟁이었고,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다.

네덜란드가 아쩨를 공격한 이유

아쩨는 수마트라 북단 위치한 이슬람 왕국으로 해적의 은신처로 사용됐고, 해적들은 동부수마트라 플랜테이션 지역의 안전을 위협했다. 또한 아쩨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다른 세력들도 아쩨에 관심을 가진다는 소문이 돌자 네덜란드 입장에서 지배권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말레이어가 인도네시아 공용어가 된다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는 말라까와 스리위자야 시대부터 공통어로 사용되던 말레이어를 식민행정과 도시 및 시장에서 공용어로 사용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독립한 후에도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채택한다.

당시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말레이어를 사용했고, 소수의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네덜란드어를 구사했다. 19세기 말부터 말레이어로 쓰인 대중문학과 인쇄물이 근대화, 민족주의 및 해방의 개념을 전했다.

1905년에는 식민정부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좋은 읽을거리' 를 공급하기 위해 말레이어와 지역어로 출판물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후일 국영 출판사 발라이 뿌스따까(Balai Pustaka)를 설립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사원에 첨탑과 돔 설치된 시기는 불과 100년 전

인도네시아 이슬람사원에 중동지역 건축 양식과 첨탑이 도입된 것은 20세기 들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직접 중동을 여행하게 되면서이다.

증기선으로 여행을 하는 등 교통이 발달하자,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중동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고, 현지에 머물면서 이슬람 사상을 연구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이슬람기구에 참여해 이슬람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됐다.

20세기 이전의 이슬람사원은 이슬람 도래 이전의 건축에 사용되었던 양식, 즉 힌두-불교 양식으로 건축됐다. 자바와 발리의 사원은 여러 층으로 겹쳐있는 지붕과 분리된 출입구 등의 구조를 가지며, 이는 힌두-불교 신화에 나타나는 메루산을 표현한 것이지만 19세기까지는 이슬람 건축에도 적용됐다.

"좌충우돌 인도네시아 표류기(6)"

이 준 규 (외환은행)

인도네시아로 발령 받기 전에 자카르타보다 먼저 알게 된 곳은 빈탄과 발리였습니다. 빈탄은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면서 한번씩 가게 되었고, 발리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책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발리와 인도네시아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발리는 10여년전에 조인성이 주먹을 입에 넣고 슬프게 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발리에서 생긴일' 이라는 드라마의 영향으로 무언가 부자들이나 가는 럭셔리한 여행지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고요테 어글리' 라는 영화의 원작자인 '엘리자베스 길버트' 의 'eat pray love' 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동일한 제목의 영화를 본 게 먼저이긴 했지만요… 발리의 해변이 아니고 주로 우붓이 배경인 이 책 아니 영화의 영향으로 발리의 인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리는 참 특별해 보입니다. 방황의 시작과 종착지입니다. 어느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떠난 여행에서 새로운 사랑과 인생의 균형을 배우는 종착지가 발리인 것입니다. 사랑과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곳…이보다 발리를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어찌보면 최고의 찬사입니다.

지난 주말 발리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온지 1년여 만에 벌써 세번째 여행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평생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도 장인어른 생각이 났습니다. 70세가 다 되어서 제주도를 처음 가셨던 장인어른은 '그 옛날에 신혼여행은 온양온천에 다녀왔다' 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도 평생에 한번 제주도를 다녀오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높은 파도와 푸른 하늘, 시골풍경과 예술의 혼이 공존하는 그곳은 갈 때 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간 친구는 물가가 비싼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서서보는 뮤지컬과 천원짜리 기네스생맥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뉴욕에 주재원으로 있는 친구는 주말에 연미복을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섹스앤더시티' 에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거나, 출근길에 배를 타고 선상에서 베이글과 스타벅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카르타에선 무엇일까요? 제 경우에는 반바지를 입고 온 가족이 즐기는 골프게임과 꿈의 휴양지 발리를 국내선을 타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스르륵 비행기가 산뜻하게 공항에 내리면서 발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리는 파도가 아름다운 섬입니다. 호주의 몇몇 청년들은 사면이 바다인 나라의 사람답게 '인생의 목표가 좋은 파도를 만나는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처럼 평생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꾸따해변의 높은 파도는 이런 젊은이를 끌어모으기에 충분하며 이들로 인해 시내 뒷골목의 음악까페들은 밤새는 줄 모르고 성업중입니다.

하지만, 발리는 이것외에도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발리에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은 레프팅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는데, 여기 와서는 여러 번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끼면 한번에 2~3만원정도에 할 수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때로는 유유자적하며, 때로는 급한 물살에 한 두명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노를 저으며 제법 그럴듯한 기암절벽과 반얀트리나무 같은 열대림을 즐기고, 하류 정착장에서 야외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레프팅의 백미는 중간중간에 만나는 낯선 여행객들과 펼치는 물싸움에 있습니다. 현지 키잡이들이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지만, 한번 물을 뒤집어쓰게 되면,그 다음부터는 모두들 전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날 팔이 시큰거려서 이삼일 고생을 하여야 하지만요…

그 다음 일정은 우붓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화랑을 찾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꼭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부부로 보이는 주인들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무심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계단식 논에서 추수하는 농부들 뒤로 해가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그림을 사고 싶은 마음이 동하면 일단 흥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흥정은 붙여놓은 가격의 십분의 일 정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역시 발리에서 맛보는 발리산 돼지고기입니다. 두툼하게 썰어놓은 삽겹살은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온 우리들이나 모르긴 해도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도 여행 마지막날에 공항가는길에 먹게되는 삽겹살 맛은 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아쉬움과 추억을 뒤로하고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동안 서너번은 더 발리로 끔~발리(kembali)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커피의 종류

* 에스프레소를 사용해서 만든 베리에이션

◐ 에스프레소(espresso)
베리에이션의 핵심. 이름 그대로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추출한다. 잘못뽑으면 쓴맛이 강하게 추출된다(제대로 만든 에스프레소는 쓴맛이 거의 없다.)

◐ 솔로(Solo)
말그대로 한잔의 에스프레소.

◐ 도피오(dopio)
'2배(double)' 라는 의미. 에스프레소를 두 배로 마시고 싶거나, 카푸치노 등을 진하게 마시고 싶을 때 "도피오로 해달라" 면 된다.

◐ 롱고(Lungo)
에스프레소를 길(long)게 뽑는것을 말한다. 과다추출된 맛.

◐ 리스트레또(Restretto)
에스프레소를 보다 진하게 뽑는것을 말한다. 에스프레소의 농도는 뽑기시작하면서 점점 진하지다가 피크를 지난후 점점 엷어지며 엷어진 부분에서 추출을 하는데 리스트레또는 가장 진한 시점으로 제한(Restrict)에서 뽑는다. 그러므로 양이 적으며 보통 도피오양을 리스트레또로 뽑는다. 에스프레소를 보다 진하게 해달라고 하면 보통 도피오로 주는 경우가 많다.(물론 스타벅스의 바리스타까지 그런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도피오는 양만 많아질뿐 농도는 그대로이다. 진하게 해달라고 하면 리스트레또로 뽑아줘야 한다.

◐ 카페 라테(caffe latte)
라테는 '우유' 를 의미한다.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을 1:4로 섞어 부드럽다. 아침에 주로 빵과 함께 혹은 식사대용으로 마신다고 한다.

◐ 카푸치노(cappucino)
에스프레소에 우유거품을 얹은것. 카페 라테보다 우유가 덜 들어가 커피 맛이 더 진하다. 기호에 따라 계피가루를 뿌리기도 한다. [카푸친 수도회] 사람들이 쓰는 흰 터번 또는 모자(cap)를 쓴 모습과 비슷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그러나 백과사전을 보면 카푸친자체가 흰색두건이라는 뜻이다)

◐ 콘 파나(con panna)
데미타스잔의 에스프레소에 휘핑크림을 얹었다. 마키아토와 비슷하지만 더 달다. 뜨거운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 크림을 얹기가 쉽지 않아, 커피를 만드는 종업원(바리스타)들이 껄끄러워하는 주문 중 하나이다.

◐ 마키아토(Macchiato)
데미타스잔의 에스프레소에 우유거품을 얹은것.

◐ 카페 모카 (caffe mocha)
카페 라테에 초콜릿시럽을 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모카항의 커피는 쵸코렛향이 난다는 말 때문에 쵸코렛을 첨하고 카페모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 모카치노(Mochaccino)
카푸치노에 쵸코실럽(카페모카에서 휘핑크림을 없엔것이라 생각하면된다.)

◐ 카페비엔나
우리나라에서 생긴메뉴인 듯. 에스프레소 + 뜨거운 물 + 크림.

◐ 에스프레소 레귤러(Regular)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일반 커피정도로 만든것.

◐ 카페 아메리카노 (americano)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 레귤러보다 더 연하다. 미국에서 많이 마시는 커피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드립커피를 이용하여 만든 베리에이션

◑ 카페오레(Cafe au Lait)
드립추출 커피에 뜨거운 우유를 섞은것

◑ 카페로얄(Cafe Royal)
커피잔위에 각설탕을 얹은 로얄스푼을 걸쳐놓고 브랜디를 설탕에 부은후 불을 붙이고 녹인후에 1/3을쯤 남았을때 커피와 섞어주고 마신다. 연출효과가 큰 드립커피 베리에이션.

◑ 아이리쉬커피(Irish Coffee)
스카치위스키를 섞은 커피잔에 휘핑크림을 얹은 후 잔 테두리에 설탕을 얹은것. 아이리쉬커피의 유래는 초창기 유럽 – 미국노선은 아일랜드의 더블린공항에 중간 기착하여 연료를 급유해야 했다. 이때 기착한 승객들이 쉬면서 약간 음습한 아일랜드의 기후에 따듯한 커피가 제격이라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스키를 더함으로서 몸을 더 따듯하게 해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 핫모카자바(Hot Mocha Java)
커피에 쵸코시럽을 섞고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것.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사용하면 카페모카가 된다. 참고로 그냥 모카자바는 예맨모카(혹은 에디오피아모카)에 자바아라비카를 섞은 브렌딩커피를 말하며 전혀 다른 것이다.

◑ 커피젤리
커피에 젤라틴을 섞어서 만든 젤리.

◑ 아이스커피
말그대로 커피에 얼음넣어서 차게만든것.

◑ 비엔나커피
커피위에 휘핑크림을 얹은것.

* 에스프레소와 드립커피의 차이점은 추출방식

'에스프레소' 는 한잔에 약 8~9g정도의 신선한 커피를 가늘게 분쇄해서 사용하여 9bar 정도의 압력으로 90~92도 정도정도로 25초 사이에 빠르게 추출한 커피. (추출액량 : 25ml/잔 (거품을 뺀 양으로 데미타스잔으로 약 1/4을정도))
'드립커피' 는 융이나 종이필터로 커피원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추출한 것

<편집부>

연재 Jalan-jalan Jakarta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신적 신전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인류와 문화의 역사 여행(신관 1층)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2007년 개관한 신관을 탐방하기에 앞서 국립박물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국립박물관은 나라에서 세워 나라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박물관이다. 거기에는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랑이 있다. 자긍심은 안을 향한 것이고 자랑은 밖을 향한 것일 텐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총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신관은 1996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 완성되었다. 꾼짜라닝랏교수의 제안에 따라 7개 문화 요소(종교, 사회조직, 과학, 언어, 예술, 일상생활, 기술 및 장비제도)와 시대에 따라 소장품을 전시한다.(1,2층) 또한 보물과 도자기 소장품도 특별히 보존되어 있다. (4층)

1층 전시실: 인류의 기원과 환경, 문화의 발생

수백만 년 전부터 선사시대 말까지 살았던 인간과 환경에 대한 문화를 전시한다. 왼쪽에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종족에 대한 그래픽 영상이 있다. 영상의 주인공들은 시간이 멈추어버린 이미지와 각 종족을 대표하는 차림으로 관람객을 그윽이 바라볼 뿐이다. 세월이 지나간 자리마다 맺혀있는 물방울 속에 바람이 머문 그리움이 묻어있다. 오른쪽에는 '지형학과 인간 이주와 동물계', '원시인(호모 에렉투스)', '인도네시아 유인원 유적지 전파', '90만 년 전의 솔로(Solo) 해저분지의 자연환경', '혈거인 생활', '후기 선사시대 생활' 이렇게 소주제로 나누어져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 호모 플로레시엔시스(Homo floresiensis)도 특별하게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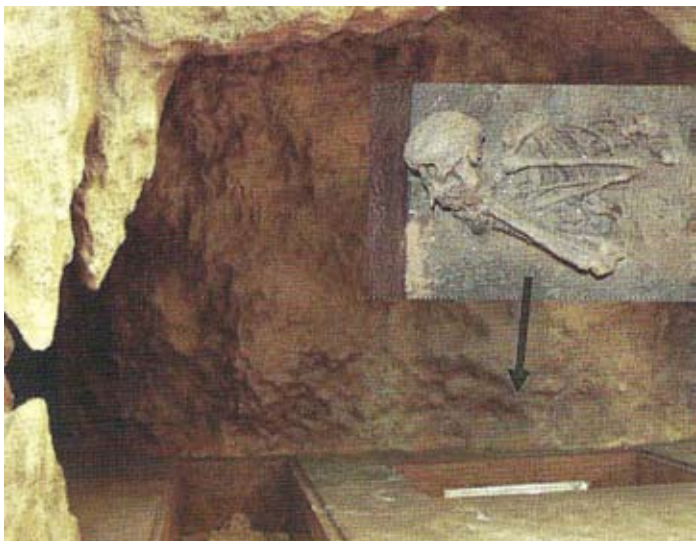
① 지형학 그리고 인간과 동물계 이주 인도네시아의 군도는 신생대 제3기(마이오세, 플리오세)와 제4기(플라이스토세, 현세)를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제3기초기 때는 바다에 잠겨 있었고,

후기 때 화산 활동, 즉 태평양지판이 유라시아 대륙지판 아래로 밀려 올라가면서 생긴 균열로 육지와 산맥이 생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신생대 4기인 플라이스토세(4번의 빙하, 사이 3번 따뜻한 시기) 때 빙하시대가 와서 동물들은 추위를 피해 터전을 옮긴다. 이러한 환경은 군도 형태에 영향을 끼쳤다. 자바 해(Laut Jawa)와 남중국해가 빠져나가서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섬은 아시아대륙과 연결되게 되었다. 동인도네시아는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와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웰리스 라인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11,000년 전, 현세(신생대 제4기 후기) 시대가 되어 현재처럼 자바 섬,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섬이 분리되었음을 벽에 전시된 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생대에 형성된 인니군도는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로 불안정한 지질구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진,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시생대 지층이 40%나 되어서 안정된 지질구조다. 중생대 말기에 혹한기가 찾아와 많은 동물이 멸종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공룡과 암모나이트 인데 1층 입구 오른쪽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전시되어 있다. 중생대에는 인니군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화석을 보면 무척추 동물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모나이트 화석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단단한 침묵 속에 쓰러져……. 신생대에 새로운 동물이 나타나 큰 변화가 생긴다. 신생대 때 서식했던 동물들이 웰레스 라인(Garis Wallace)을 중심으로 서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발리 포함한 왼쪽)에 서식한 원숭이, 라이노 호랑이, 물소, 하마, 거북이, 동인도네시아에 서식했던 코끼리, 코뿔소, 스트고돈 등으로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웰레스 라인을 중심으로 기후, 동물군 식물군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한다. 구석기시대의 자연환경의 이해를 위해 지질시대의 신생대에 살았던 동물상의 화석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② 구석기 시대 원시인-Homo Erectus(호모 에렉투스) 외 다음 포스트는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부터 살았던 원시인에 대해 설명한다. 신생대 제3기후기 때 최초의 인류 Australopithecus가 나타난다. 제4기는 지질시대의 마지막 시기로서 전체 46억년 중의 불과 1/2,300에 해당되는 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 생물계에는 직립 원시인 Homo Erectus가 출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는 백만 년-백오십만 년 전에 Homo Erectus Archaic와 아시아에서 이주한 Meganthropus, 두 종류 원시인이 살고 있었다. 빙하기 시대인 신생대 제3기 말(플리오세)에 아시아가 얼음으로 덮이게 되자 원시인들은 바닷물이 100미터나 빠져나감으로 생긴 땅을 통해서 동물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주했다. 에렉투스는 진화하면서 문화를 만들어 살아남았지만 Meganthropus는 일찍 멸종되었다. 모든 사라지는 것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지만 몸 안에 돋친 슬픔을 안고서 영원히 사라진다. 불을 다루었으며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으며, 두터운 눈두덩과 강인한 모습으로 상징되어 온 에렉투스. 플라이스토세 시대(신생대 제4기) 때 솔로 강가에서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 화석은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Eugene Dubois에 의해 발견됨으로 잃어버린 원시인의 링크를 찾을 수 있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 생물학적 진화 과정은 약 130만년 동안 3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친다. ①고대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Archaic): 플라이스토세 초기(150만~90만 년 전),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인류화석, 두뇌 용량(약 800cc), 해골 두께(1.2cm로 두터운 편) ②전형적인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Tipik): 플라이스토세 중반(80만~40만 년).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인류화석, 두뇌 용량(약 900cc), 해골 두께(얇은 편). ③진화된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Progresif): 플라이스토세 중반 말(20만~10만 년), 두뇌 용

량(약 1,100cc). 이처럼두뇌 용량도 커지고 몸은 탄탄해지고 키가 165-180cm인 Homo Erectus Progresif 으로부터 Homo Soloensis와 Homo Wajakensis, Homo Mojokertoensis 등은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들은 모두 자바인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저승 같은 추위, 하늘, 바람, 타는 듯 한 태양, 야생동물, 어두운 강줄기……. 때로는 혼돈과 암흑을 가르는 야성의 음악 속에서 억 억 쉰 탄 목으로 울기도하였다. 그러나 나무 위에 소리없이 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자바인들은 성스런 영혼 살찌우며 특유의 강인함으로 그들의 문명을 일구어 나갔다. 유리 장에 신생대 제3기인 플라이오세 중기에서 제4기 플라이스토세 (빙하시대 혹은 홍적세라고도 함) 초기에 걸쳐 번성했던 코끼리인 스테고돈 (Stegodon)의 상아화석, 하마의 턱뼈, 코뿔소와 물소, 사슴 뿔 화석도 있고, 중생대 때 살았던 조개와 달팽이, 불가사리, 화석도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동물화석은 지질시대의 자연환경과 동물의 진화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시품 중에 플로레스에서 발견된 Homo Floresiensis가 있다. Homo Floriensis는 Homo Erectus와 Homo Sapiens 중간에 나온 원시인으로 키가 120cm로 제일 작은 원시인이다. 그는 NusaTenggara Timur의 리앙 부아(Liang Bua) 동굴에서 살았다. 키 작은 원시인은 동굴 구석에 가만히 앉아 꽃이 되기도 하고 안개로 피어나기도 하면서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존재의 특별함을 뽐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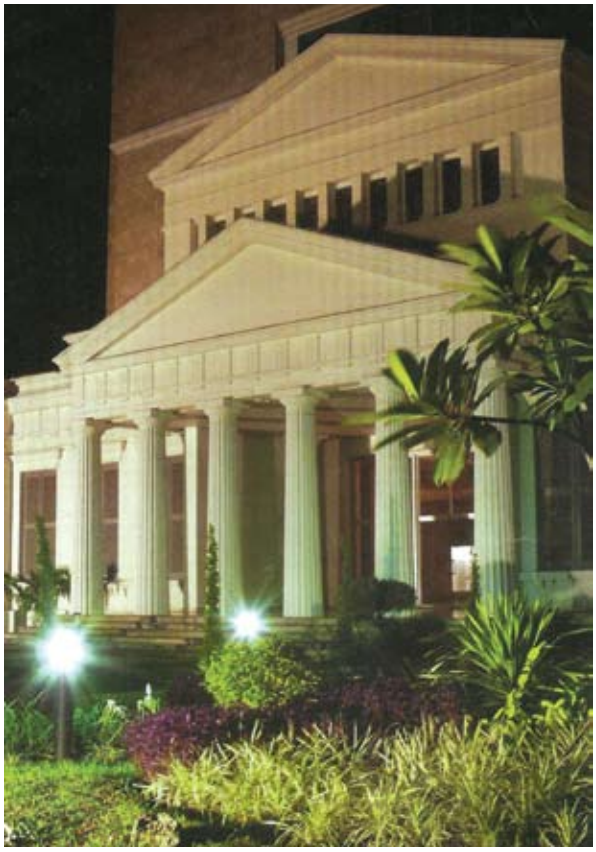
③ 유인원 유적지와 90만 년 전의 솔로(Solo) 자연환경 선사시대 관한 화석들이 중부자바와 동부자바로 흐르는 솔로(Bengawan Solo) 강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원시인들은 사냥할 동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껜뎅(Kendeng) 산맥과 뜨리닐(trinil) 지역, 박서까뿌눙(BaksokaPunung) 강, 삼붕마짠(Sambungmacan) 지역, 빠띠아얌 (Patiayam) 지역 등 주로 솔로 강 주위에 살았기 때문이다. 특히 Homo Erectus Progresif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상이란(Sangiran)과 아위(Ngawi), 모조끄르또 (Mojokerto) 등이 유인원 유적지로 유명하다. 자바 섬에서 호모 에렉투스 화석이 많이 발견된 반면에 다른 섬에서는 더 진화된 호모 사피엔스(제4기 플라이스토세 말기~현세)가 많이 발견되었다. 호모 에렉투스의 문화유산인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빠찌딴(Pacitan)과 남부 술라웨시의 왈라네 강(Sungai Wallane)에서 발견되었다. 90만 년 전 중부자바에 위치해 있는 껜뎅산맥이 침식되어 솔로는 시간이 갈수록 열대 우림으로 변해갔다. 따라서 식물들이 심한 건기에 적응하기 위해 뒤틀리는 괴로움을 견디며 온몸으로 맞



서며 변해갔다. 그 곳에서 악어와 거북, 돼지, 원숭이, 코끼리, 호랑이, 물소, 하마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중석기시대의 문화층이 가늠되었다. 이처럼 솔로는 선사문화와 구석기 고고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적지이며 후일 왕국의 도시가 되는 선사와 역사의 도시다.

④ 동굴인 생활 선사시대의 동굴생활을 보여주는 모형이 있다. 원시인은 2-5가족으로 무리를 만들어 맹수와 추위, 더위를 피해 동굴에서 생활하며, 식량 마련을 위해 이동생활을 하고, 돌도끼 같은 간단한 장비를 사용했다. 그들은 석기기술을 알고 뗀석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장비를 만들었다. 즉 Kapak Perimbas란 돌로 된 도끼는 사냥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Homo erectus Tipik도 손잡이 없는 genggam 도끼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진화된 Homo Erectus Progresif가 창을 만들고 뼈 도구를 사용했다. 이처럼 채집과 수렵생활, 뗀석기와 뼈를 이용하던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현세(제4기 후기, 약 11,500년 전)에 원시인의 삶은 더욱 발전되었다. 호모 사피엔스에 포함되어 있는 동굴인 들은 돌조각을 사용한 도구와 매장도구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들의 흔적은 주로 동굴에서 발견되고 있다.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도구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생필품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이 풍부하고 동물 많이 사는 곳에 살았다. 동굴의 천정이나 암벽 등에 색채 원료를 사용한 동굴 벽화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주로 사냥을 대상으로 하는 짐승들을 표현하였다. 이는 사냥꾼의 안전과 풍부한 수확을 기원하는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자바의 동굴인 들은 산업 활동과 난로 및 매장기술, 거주체계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다.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최초로 문명을 일구어낸 동굴 인이 아닐까. 땅만큼 처절했고 하늘만큼 초연하게 생활한 그들. 저만치 그 누구의 그리움이 있기에 원시의 바람은 오늘도 떠날 줄을 모른다. 어디쯤 하나 둘씩 잃어버린 야성을 우린 다시 찾아야한다. 원시의 바람 속에서.

⑤ 선사시대 말 토장 장례식 신생대 제4기 인 현세 때는 기온이 차차 높아지고 인류가 번성한 시기이다. 생필품이 다양해져서 자급자족이 어려워졌으며, 농부와 상인 외에 도예가와 대장장이, 보석 세공인 같은 직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물교환과 무역활동도 시작되었고 금속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시대) 선사시대 때 토장 장례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시된 발리의 길리마눅 (Gilimanuk) 해변에서 발견(1985년)된 원시인 골격은 어부 골격으로 추정된다. 중석기 시대인 2200년-1800년 전, 최초의 토장 장례식 화석으로 그 의의가 크다. 19세쯤 되는 여자로 시신 옆에 생활용 칼이 있으며, 다리 접힌 시신이 바로 땅에 묻었다. 반면에 남자는 직선으로 묻혀있다. 중부자바 쁠라왕안 (Pelawangan)에서 발견된 어부와 농부의 골격에 대한 설명이 있다. 다리가 접힌 상태로 항아리나 청동관 안에 넣어서 땅에 묻었다. 신분에 따라 토장 방법도 달랐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석관 혹은 고인돌을 사용해서 토장한



관습이 있었다. 중부자바에서는 동굴 안에 땅을 파고 뚜껑 없이 묻는 관습도 있었다. 차차 토장 기술도 발전하였으며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인이 사용했던 물품과 장식품을 같이 땅에 묻는데 매장품을 보면 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토장 법을 통해 종교체계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흙속에 묻힌 길리마눅 신부여, 너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너 몸 다 굳어져 흙인형으로 변했다가 무덤 빈자리 돌아와 고요히 네 몸을 열어다오. 바로 산산이 부서져 바람 속에 흩어지는 말,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람의 빈자리 만져본다. 수 천길 땅 속에서 끌어낸 길리마눅 신부여. 그 몸에 생기가 돌고 언제나 열려있는 어느 영원의 길이로 사뿐 걸어와다오.

시간이 흘러도 옛 사람들이 남긴 흔적은 남아 과거로의 여행을 안내하고 있다. 길을 건너 먹이를 구하고 앞서 간 발자국 겹쳐 밟으며 내는 것이 길이라면 주저 없이 달리리라며 내 한 몸 내어주던 동굴인들. 그들도 꽃은 피고 떨어지고 다시 피워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피고 지는 꽃처럼 그 길이 역사임을. 그래서 때로는 캄캄한 어둠이 되어 들판을 헤매어 달릴지라도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우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밤들이 지나갔다.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쉼 없이 흐르는 솔로 강처럼. 그런 성실함으로 서로 단단하게 부여잡고 문명을 일구어 낸 호모 에렉투스. 그 많은 밤과 낮의 행복과 괴로움은 사람의 길만은 아닌 듯. 그 긴 기다림 후에 화석을 통해 순간이 영원에 이르는 것일까. 과연 영원은 무엇이고 우주는 무엇일까. 후진성을 면치 못한 국립박물관 환경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고고학적 사료를 놓칠까 나는 후각 촉각 시각을 세우고 이 박물관의 사명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Museum Nasional

Jl. Merdeka Barat No.12 Jakarta Pusat
Tel : 3811551 / 3447778
화 – 목 : 08:30–16:00
금 : 08:30–11:30 | 13:00–16:00
토 – 일 : 08:30–17:00
월, 공휴일 : 휴관
입 장 료 : Rp 5000 (성인), 2000 (어린이)
외국인 10.000
한국어 가이드: 셋째 토요일 9:30 (접수 인도웹)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Komodo Island

< 바다 정원 >

우리가 사는 지구의 70%는 "물" 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중 99%는 "바다" 라는 거대하고 풍요로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지와 같이 꽃이 있고 새와 같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는 바다정원
우리가 한번은 경험해야하는 경이로운 공간 입니다

사진과 글 **엄 종 한** 한인뉴스편집위원

연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학원 설립 제도(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4. 유치원(TK)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4.1. 아직 유효한 유치원 설립허가서
14.2. 구청 초등교육과장의 추천서
14.3. 재단의 정관 사본
14.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4.5. 유치원 설립 취지서
14.6. 유치원의 교육 계획
14.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4.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4.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4.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4.11. 재단법인 조직도
14.12. 유치원 건물 배치도
14.13. 유치원장 임명장
14.14. 유치원장 이력서
14.15. 유치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14.16. 유치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4.17. 유치원 원아 인원 최소 10명 명단
14.18. 유치원 시설 및 비품 목록
14.19. 학칙
14.20. 학사 일정
14.21.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4.22. 오전 6시 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4.23.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5. 초등학교(SD)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5.1. 아직 유효한 초등학교 설립허가서
15.2. 구청 초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5.3. 재단의 정관 사본
15.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5.5. 초등학교 설립 취지서
15.6. 초등학교의 교육 계획
15.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5.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5.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5.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5.11. 재단법인 조직도
15.12. 재단법인 운영위원 명단(이사장, 서기 및 회계)
15.13. 초등학교 조직도
15.14. 초등학교 건물 배치도
15.15. 초등학교장 임명장

15.16. 초등학교장 이력서
15.17. 초등학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15.18. 초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5.19. 초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15명 보유
15.20. 현재 학생 명단
15.21. 초등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5.22. 학칙
15.23. 학사 일정
15.24. 교육 이베류에이션 및 감독 도구
15.25. 오전 6시 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5.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6. 중학교(SMP)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6.1. 아직 유효한 중학교 설립허가서
16.2. 구청 초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6.3. 재단의 정관 사본
16.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6.5. 중학교 설립 취지서
16.6. 중학교의 교육 계획
16.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6.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6.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6.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6.11. 재단법인 조직도
16.12. 재단법인 운영위원 명단 (이사장, 서기 및 회계)
16.13. 중학교 조직도
16.14. 중학교 건물 배치도
16.15. 중학교장 임명장
16.16. 중학교장 이력서
16.17. 중학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6.18. 중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6.19. 중학교 학생 인원 최소 20명 보유
16.20. 현재 학생 명단
16.21. 중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6.22. 학칙
16.23. 학사 일정
16.24. 교육 이베류에이션 및 감독 도구
16.25. 오전 6시 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6.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7. 고등학교(SMA)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7.1. 아직 유효한 고등학교 설립허가서
17.2. 구청 중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7.3. 재단의 정관 사본
17.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7.5. 고등학교 설립 취지서
17.6. 고등학교의 교육 계획
17.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7.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7.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7.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7.11. 재단법인 조직도
17.12. 재단법인 운영위원(이사장, 서기 및 회계) 명단
17.13. 고등학교 조직도
17.14. 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17.15. 고등학교장 임명장
17.16. 고등학교장 이력서
17.17. 고등학교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7.18. 고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7.19. 고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20명 보유
17.20. 현재 학생 명단
17.21. 고등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7.22. 학칙
17.23. 학사 일정
17.24. 교육 이베류에이션 및 감독 도구
17.25. 오전 6시 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7.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8. 기술고등학교(SMK)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8.1. Feasibility Study 첨부 재단법인 이사장의 신청서
18.2. 아직 유효한 기술고등학교 설립허가서
18.3. 재단의 정관 사본
18.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8.5. 기술고등학교 설립 취지서
18.6. 기술고등학교의 교육 계획
18.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8.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8.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8.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8.11. 재단법인 조직도
18.12. 재단법인 운영위원(이사장, 서기 및 회계) 명단
18.13. 기술고등학교 조직도
18.14. 기술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18.15. 기술고등학교장 임명장
18.16. 기술고등학교장 이력서
18.17. 기술고등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8.18. 기술고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8.19. 기술고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20명 보유
18.20. 현재 학생 명단
18.21. 기술고등학교 시설 및 비품 목록
18.22. 학생 학칙 및 교사 복무 규정
18.23. 학사 일정
18.24.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8.25. 오전 6시 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8.26.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19. 특수학교(SLB) 운영 허가서 신청 구비요건

19.1. 아직 유효한 기술고등학교 설립허가서
19.2. 구청 초등교육과장 및 시청 교육국장의 추천서
19.3.재단의 정관 사본
19.4. 사회국 발급 재단법인 등록증
19.5. 기술고등학교 설립 취지서
19.6. 기술고등학교의 교육 계획
19.7. 재단법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계획서
19.8. 재단법인의 소재증명서
19.9. 커리큘럼 이행 각서
19.10. 토지등기 권리증서 및 건축허가서 첨부 건물 소유증명
19.11. 재단법인 조직도
19.12. 재단법인 운영위원(이사장, 서기 및 회계) 명단
19.13. 기술고등학교 조직도
19.14. 기술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19.15. 기술고등학교장 임명장
19.16. 기술고등학교장 이력서
19.17. 기술고등장 및 교사들의 학위 증서 사본
19.18. 기술고등학교 직원 명단 및 개인 별 직무
19.19. 기술고등학교 학생 인원 최소 5명 보유
19.20. 현재 학생 명단
19.21. 학칙
19.22. 학사 일정
19.23. 교육 이베률에이션 및 감독 도구
19.24. 오전 6시 30분부터 공부 이행 학교장 각서
19.25. 제출하는 자료 및 서류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각서

20. 학원 및 직업훈련학교(LKP) 설립 신청 구비요건

20.1. Feasibility Study 첨부 재단법인 이사장의 신청서
20.2. 시청 중등교육국자의 추천서
20.3. LKP 소재 허가서
20.4. 강의실 및 다른 시설
20.5. 책임자 및 강사의 학위 증서(해당 분야 최소 D3)
20.6. 사무직원 최소 1명 보유
20.7. 피교육자 최소 6명
20.8. 강의실 최소 2개, 학원장실, 강사실, 행정실, 화장실, 기도실, 도서실 및 기타 법정 시설
20.9. 앞으로 4년 간 교육 계획서
20.10. LKP 명의 독립 은행 계좌 보유
20.11. 책임자의 사진 3x4=4매
20.12. Rp.6,000.- 짜리 수입증지 2개
20.13. 준법 약속 각서

21. 주민공부센터(PKBM)

21.1. 시청의 교육국장의 Feasibility Study 검토 의견서를 첨부한 주민공ㅂ부센터 설립 신청서
21.2. 주민공부센터 장소 허가서
21.3. 재단법인의 정관 사본
21.4. 주민공부센터 지도자의 주민등록증
21.5. 주민공부센터 지도자의 최종 학력증명서
21.6. 기본 최소 시설 보유
21.6.1. 토지 최소 100 m2
21.6.2. 20명 수용 가능 강의실 6 x 6 m2 최소 2개
21.6.3. 책임자실, 강사실, 도서실, 기도실 및 화장실
21.7. 커리큘럼
21.8. 위치도/건물 배치 평면도
21.9. 소재증명서
21.10. 지도자 및 책임자의 사진 3x4 각 4장
21.11. Rp.6,000.-짜리 정부 수입인지 2매

* 주민공부센터 계획서/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장 : 서문(설립 배경, 취지 및 근거 법규)
제2장 : 게요
- 주민공부센터 정보(이름, 주소, 재단법인명, 지도자의 성명, 최종학력, 전문분야, 거주지 주소)
- 비젼 및 임무
- 공부의 종류
- 보유 시설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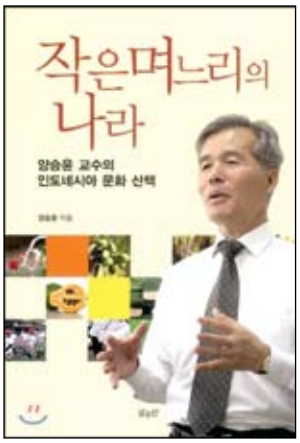
- 조직표
- 소요 자금 출처
- 협력 기관
제3장 : 결어(결론 및 제안)

22. 조기 교육원(PAUD)

22.1. 아직 유효한 조기교육원 설립허가서
22.2. 조기교육원 이름("예" Mitra Bangsa Play Group)
22.3. 조직도
22.4. 원이 최소 10명 보유
22.5. 교사 명단
22.6. 교사 자격 : 고졸 이상에 조기 교육자 자격증 보유자
22.7. 책임자, 교사 및 관리자의 이력서
22.8. 책임자, 교사 및 관리자의 직무표
22.9. 커리큘럼
22.10 학칙
22.11. 건물 배치도
22.12. 성실 교육 서약 각서
22.13. 최소 기본 비품 및 시설
- 이야기 책들, 장난감장, 녹음기, VCD Player, 카셀, 동요 CD, 칠판, 지방 문화 및 전통에 관한 장난감, 교육용 장난감 : 기하학판, 퍼즐, 나무 토막, 요리 등.
- 놀이터, 공부방, 목욕실, 화장실 등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필수 시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인도네시아 다시 보기



작은 며느리의 나라 : 양승윤 교수의 인도네시아 문화 산책 | 양승윤 저 | 삼우반

인도네시아 한국학의 대부로 불리는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말레이 · 인도네시아어과)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외대에서 교수로 재직해 온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전문가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국립인도네시아대학(UI)과 가쟈마다대학(UGM)에 한국학과와 한국학센터 개설을 주도하며 한국학 보급에 힘써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자연 환경, 역사와 문화, 종교와 전통, 사회 통념과 중동과 다른 이슬람, 음식 문화, 정치와 사회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또한 개가 짖는 소리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사회체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유학생이나 기업인들에게 문화적 배경과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는 책으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바르게 보는 자세와 안목을 발견할 수 있다.

아빠까바르 인도네시아 : 외교관이 본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화 한류 | 김상술 저 | 그린누리

인도네시아에서 4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저자는 풍부한 자원과 2억 4천만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로 성장한 우리 동포사회를 조명하고, 머나먼 남국에서 우리 문화를 심고 가꾸며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교민들의 사회 · 문화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확산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작가의 망명 : 인도네시아의 대문호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와의 대화 | 안드레 블첵,로시 인디라 공저/여운경 역 | 후마니타스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는 인도네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부루 4부작'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거의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다. 2006년 그가 타계했을 때 많은 해외 언론들은 "세계 문학계의 큰 손실"이라며 애도했다. 수하르토 독재 체제 아래 강제수용소 생활과 가택 연금, 작품의 출판 금지 등을 겪으면서, 수하르토 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나눈 대담을 기록한 이 책에서는 세계적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룬 인도네시아 근 · 현대사를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재조명했다.

디자인으로 배우는 GO! GLOBAL 시리즈 인도네시아 | gumbook 그림 | 아메바(amoeba)

GO! GLOBAL 포스터 시리즈는 어린이를 위한 학습용 포스터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한 지식을 그래픽 벽그림으로 배울 수 있다. 앞면은 나라의 풍경이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면은 그래픽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나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포스터를 통해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나라에 흥미를 갖고, 각 나라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기독교 서적 특집

처음마음 : 참 행복을 시작하는 내 마음의 전원 스위치 | 이찬수 저 | 규장

"드디어, 진정한 보호자를 만났다!" 주님과 동행하는 첫 감격이 시작될 때 삶의 능력이 살아난다 저자는 먼저 우리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보호자를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처음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참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신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기다려 : 힘들지, 하지만 널 위해 내가 허락한 시간이다 | 체리 힐 저/배응준 역 | 규장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삶의 표면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것만 같은 위협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기적을 당신의 삶 가운데 마련해두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 작가의 말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 Flying : 믿음의 날개로 날다 | 닉 부이치치 저/최종훈 역 | 두란노

"어린 시절에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고, 결혼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나의 절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도전하지 않겠는가?" – Nick Vujicic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는 복음전도자. 닉 부이치치는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쉬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8세 이후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 양육 받았다.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회장을 지냈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다. 팔다리가 없어도 서핑에 도전하고, 요리를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타이핑을 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의 믿음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을 딛고 희망을 보았던 닉 부이치치의 끝없는 도전이 다시 한번 펼쳐진다.

5가지 사랑의 언어 | 게리 채프먼 저/장동숙 역 | "사랑의 언어로써 가정을 지키다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인다. 심한 경우는 결별에 이르기까지 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 생활 세미나 인도자로 40여년 이상 부부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저자 게리 채프먼 박사는 많은 부부들의 실례를 들어가며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유서영
021-2902-1714(직통105) / 0821-2282-8352 /
berrius@yes24.co.id / www.yes24.co.id

7월의 영화 추천작

새로운 빙하기, 생존자들을 태우고 끝없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억압에 시달리던 꼬리칸 사람들이 부자들과 공권력이 있는 앞쪽 칸을 향해 한 칸 한 칸 적과 맞닥뜨리면서 돌파해 나간다.

<설국열차>

8월 1일 개봉을 예고한 '설국열차'는 45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2013년 한국영화 최대 기대작이다. 그런데 홍보 마케팅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설국열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영화 '설국열차'는 프랑스 작가 장 마르크 로세트의 만화를 원작으로 갑자기 찾아온 기온 이상으로 시작된 빙하기, 유일한 생존 구역인 설국열차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살인의 추억', '괴물' 등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의 초특급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설국열차' 관련 정보는 촬영 현장을 담은 티저 영상을 비롯해 1차 예고편,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직접 그렸다는 설국열차의 도면 뿐이다. 개봉 일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팬들은 궁금증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론 레인저>

이영화는 여름 대작답게 149분 동안 유쾌한 웃음과 시원한 액션으로 두 눈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어딘가 '캐리비안의 해적'의 후광을 지울 수가 없다. 제작진과 조니 뎁 때문인지 자칫 '캐리비안의 해적: 론 레인저의 저주'로 느낄 관객도 많겠다.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점은 액션 어드벤쳐의 제왕인 제리 브룩하이머와 고어 버빈스키 감독 콤비의 아우라, 조니 뎁과 아미 해머의 허의 환상적인 앙상블이다. 조니 뎁 특유의 유머 코드를 좋아하는 관객에겐 볼만한 여름 대작이 될 것이다. 쿠키 영상을 가장한 엔딩크레딧 속 노쇠한 톤토는 뒷모습마저 '미친 존재감'을 관객에게 안긴다. 잭 스패로우만큼 전율을 느끼게 하는 톤토. 역시 조니 뎁은 명불허전, 진리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매력의 인디언 악령 헌터 '톤토'는 신비로운 힘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존'을 살려낸다. 극적으로 살아난 '존'은 블랙 마스크를 쓴 히어로 '론 레인저'로 부활하는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무법천지에 오로지 복수를 위해 뭉친 '톤토'와 '론 레인저' 콤비, 그들이 펼치는 와일드한 액션이 시작된다!

제4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내가 너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
폭우에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 젖은 땅에 길 내는 잎맥처럼
문학의 길을 여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
나조차 알 수 없는 내 안의 가득한 열정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리를
문자로 해독하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
너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발견하는 숲의 미학을 아는,
너에게서 비롯된 나의 그대에게 가고싶다.
제3회인터넷공모전 시상식 인사말 중에서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3년 5월~8월15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 A4용지 2쪽에서~ 5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2013년 9월(일시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 의 종 류	인 원	시 상	시 상 내 역
대상(1명)	1	재인니한국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각 1명)	2	재인니한인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 1명)	2	한 · 인니문화연구원이사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 1명)	2	한 · 인니문화연구원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 1명)	2	재인니상공회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 1명)	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각 2명)	4	한 · 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원: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상공회의소,
일요신문, 한인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신문, 자카르타경제일보

특별후원: 재외동포재단. 재인니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 한인회부회장 김주철

붙임 ; (글자모양=바탕체, 글자크기=11, 행간=160%)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021) 78839597 / 0816-190-9976
서미숙 0812-8178-050 gaeunsuh@hanmail.net
채인숙 0815-8479-7879 jemmachae@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날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J 칸막이·인테리어

· 사무실 칸막이 전문시공
· 전기 및 설비공사
· 타일 및 도장공사

Tel : 021-7590-6767
HP : 0821-2564-1777
E-mail : choimg21@gmail.com
주소 : FATMAWATI LOTTE MART
RUKO BLOK G/03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횟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횟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뽄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뽄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 (강희중)	0816 798221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www. kideco.com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연기가 되어 다다릅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뚝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